

600년 팽나무와 함께

20

20



군산에서 부는
풍화바람

Volume # 01

전쟁을 끝내자

마을을 지키자

20

군산환경시민모임 배너판권

한글



하제마을 소나무, 1967년 1월 2일 정용승
(마을 주민 최경순 고종섭 님 제공)



하제마을 팽나무
(마을 주민 최경순 고종섭 님 제공)

20

군산에서 부는
평화바람

VOLUME 01

20

퍼낸날 2020.11.01

퍼낸곳 평화바람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외성산1길 27
gunsanpeace2020@gmail.com

기획 난리법석 잡지팀

다솜 소산 화연 혜린 상희 중서 시내 영길 인디
설해 오이

디자인 사과나무

도움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PEACE

010 나는 왜 군산에 가는가? _선(들)과 끈(들)

022 하제의 얼굴, 600년 팽나무

026 나와 미군기지 이야기

034 새만금 국제공항의 허상

044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평화

050 평화운동의 페미니즘적 접근

058 비밀의 정원에 함께 가 볼래요? : 하제마을 주민 최경순

066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게 중요하지 :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하운기 위원장

080 달갈로 바위가 쪼개질 때까지 쳐야 하는거여 : 카페이매진의 찰스

088 평택에서 군산까지, '가장 아픈 곳으로' : 사진가 이재각

096 평화바람,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 : 활동가 오두둑 오이 중서

PEOPLE

102 새만금 갯벌과 담수화 계획의 허상

114 양반, 군산에서 평화를 묻다

119 습지를 떠난 주인들

ECOLOGY

PROJECT

122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제 농사

126 #살고 있다

130 기억과 상상의 사소한 연결

132 군산의 맛

136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짐작

140 음악과 연대 : 낯섬과 마주하기

144 내 목소리가 듣기 낯간지러우신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146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래서 슬펐던 가을 답사길

나는 왜 군산에 가는가...?

글과 그림 _ 공통 영길



선(들)과 끈(들)

지금 여기 하제에 서서

군산에 있는 하제마을에 가면 사라진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당연히 이젠 볼 수 없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처음 갔을 때 만해도 존재하던 나무였다.
처음 안내받아 갔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소나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내 할머니 소나무가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태풍에 쓰러졌지만 생명력은 여전히 이어져 누운 채로도 그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기도 했다. 또 들은 이야기로는 이 소나무는 일종의 마을 수호령 같은 것인데, 동네에 안좋은 일을 예시한다고 들었다. 태풍에 쓰러진 후 곧바로 탄약고 문제로 동네 자체가 소거될 처지로 몰렸다고 하니 그 영험함이 더 증가되기도 하고 언젠가 소나무가 제대로 서기만 하면 동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도 보였다. 그리고 누운 채지만 나무가 죽지 않고 근근이 이어지는 게 하제마을의 운명かと 닮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우리는 흔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 즉, 이야기들의 힘, 이야기를 구성하는 힘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힘으로 삶을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믿는 편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소나무가 상징하는 하제마을 사람들의 몇 가지 심정적 신화화 혹은 장소/사물의 인격화 현상은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장소와 사물의 생명력을 이어가야만이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게 된 사람들의 삶도 의미있게 지속될 수 있다는 욕망과 어우러져 그 장대한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장소/사물은 신화화되고 인격화되어 그 생명력을 사방으로 개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지켜 달라고, 어서 찾아와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비극적 상황은 바로 할머니 소나무가 조경업자들에 의해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제거되듯 모든 이야기들의 생명력은 국가권력에 의해 한 순간에 소멸되고 만다는데 있다.
이런 상황이 슬프고 안타깝다는 심정적인 것을 넘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신차리고 물어보아야 할 것들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내고 기억하고 공유하는 이야기의 힘은 이렇게 버려져도 되는 것인가?
혹은 국가권력에 의해 용인되는 이야기와 보호될 가치를 인정받는 이야기와 철저히 모든 곳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이야기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끊어진 선들

나는 청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룡이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이제까지의 한국 사회 운동안에서 가져왔던 근본적인 지역활동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찾아가는 실험을 진행해 보고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 사안들과 한국 사회의 인권, 노동, 환경, 소수자, 평화 이슈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연대의 방식으로 활동을 해 왔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발현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슈파이팅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의 연대하기 혹은 자그마한 목소리 내기 혹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활동들로 채워지곤 하였다. 반대로 소위 지역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교육이나 다양한 만남의 방식을 통해 직접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 사회단체로서의 활동 구분은 뚜렷한 한계들을 보여준다. 즉, 지역의 개발이나 환경 이슈 등등과 같은 뚜렷한 이데올로기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직접적인 활동들, 그리고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퍼포먼스를 결합한 지역주민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반면 한국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데올로기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대 가거나 성명서, 일인시위 같은 다소 정형화된 방식을 취한달까? 이런 상황이 몇 년동안 쌓여오면서 아마도 어떤 활동의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소진되며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방식은 결국 우리들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나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믿어 온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는 소위 운동/활동의 시민사회 서비스화 현상에 복무해 온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최근의 한국사회의 보수화 현상 속에서 움츠러들고 위축되면서 점차 변방으로 내몰리는 활동의 영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지경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노동, 군축을 포함한 평화운동, 이주민노동자등의 인권운동 등은 이제 보편적인 시민사회 운동 영역에서 소수성을 가지는 각자의 운동이 되거나 마치 과거 운동진영의 화법처럼 “민중운동 혹은 부문운동”이라는 분업적 방식으로 경계나누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이에 우리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자 이데올로기적 문제이고 언제나처럼 지속적으로 국가와 자본에 의해 밀려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역의 문제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이슈로 만들어 나가고 나아가서 각각의 지역에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 현재진행형으로서의 주민운동이라는 방점을 재확인 하는 실험을 해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을 하기위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각각의 고립된 현장들과 산발적인 투쟁 현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으려는 노력, 그것이 단순하게 이슈화된 사안에 연대를 지속하는 것만으로 이어질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사안별 연대 말고 새로운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가령 지금까지 투쟁 사안별로 단기 연대 위주라면 과연 지역 단위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한국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연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각각의 사안들이 하나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설정된다면 그 문제가 나타나고 실행되는 장소로서의 지역은 그 문제의 해결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문제들을 떠안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연대의 현장을 떠나올 때마다 미안해하며 반성하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형식으로 풀어내고 답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각각의 사안별 연대가 아닌 지역/장소에 대한 연대방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를 실험해봐야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지역/장소에 대한 연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답해봐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깊어진 장소에 대한 고민들 - 공통과 나, 지난 연대들에 대한 고민들

위험하고 약한 연결고리로서 장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폭력들은 단순히 장소의 물리적 공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처럼, 밀양의 수많은 마을과 산야에서 벌어진 상흔처럼 폭력은 장소에 치유될 수 없는 상흔을 남기며 그 고통을 증명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장소에 갖는 고유한 심성의 기반이 되는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관계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그 장소를 둘러싸고 형성된 사람의 관계가 제일 먼저 파괴된다. 하지만 어느 공간이 사람 각자에게 유의미해지기 위해 가지는 각각의 장소에 존재하는 온갖 사물과의 역사 자체가 파괴되기도 한다. 그렇게 사물과



사람이 갖게 되는 사물의 정념체계 자체가 파괴됨으로써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고통들이 훑터처럼 온 삶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장소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우리가 외부인이자 연대자로 머물지 않고 모든 투쟁의 당사자로서 스스로에게 의무적으로 각인시키는 일은 일종의 도덕적 명령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런 현상이 체감, 혹은 관계맺음 안에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주어진 명령에 따라야 하는 암묵적 도덕체계처럼 무거우면서도 이성적인 도덕률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위 “우리 모두는 000이다.”같은 선언들이 우리에게 강요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도덕률은 말의 세계를 벗어나거나 혹은 우리가 소위 일상의 생활영역으로 돌아오는 순간 잊혀지곤 한다. 어쩌면 우리가 모든 장소를 둘러싼 투쟁들에서 여전히 관계맺음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관계맺기를 실패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이슈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유의미한 장소가 되도록 해주는 사물과 지역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형성에 보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협화음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밀양투쟁에 결합하고, 성주 소성리 투쟁에 결합하며 그 투쟁의 당사자와 맺은 관계 때문에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투쟁의 시간을 멀찍이 떨어져 관람하게 되는 매 순간 마음의 찢찢함, 불편함을 가질 지언정, 그것이 내가 당사자로서 겪는 변화의 순간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비장소로서의 공간들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매순간 우리는 비장소의 시간을 장소의 시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관계맺음과 장소투쟁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소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 최근들어 거의 확정적인 경향은 바로 전통적인 저항운동이 자본과 국가의 공세로부터 저항하며 맞서기 위해서 기존의 운동방식과는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한 장소성과 관련 맺는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기존의 저항운동방식을 비판없이 바꾸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저항운동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의 장소관계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존재해왔으나 우리 곁에 머물지 못했던 수많은 관계를 장소 중심으로 재속고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운동이 바로 이 새로운 장소성을 바탕으로 사회집단의 공간적 배치 속에서 상징폭력이 어떻게 작용하며 집단심리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담론과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등 새로운 형식이 저항운동의 새로운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꿈틀꿈틀대는 그 흐름들을 재발견하고 조직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저항운동과 장소의 관계를 설명하고 강화하려고 했던 이론적 관점이 오히려 저항운동을 장소로부터 이탈시키며 더 확대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저항운동의 실험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토대로서의 물리적 공간들은 곧바로 매우 부차적인 영역으로 뒤로 밀려나며 오히려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장소가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새로운 흐름의 배경처럼 그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지만 이것이 수많은 관계를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너무나 다양한 변주가 가능해졌다. 그때부터 근본적 장소는 더 이상 물리적인 지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곳으로 확장되어 흩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이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확장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착한 장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담보한 저항운동들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장소에 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오히려 물리적 장소란 궁극적으로 장소특정성이 지향했던 저항운동의 관계지향성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장소는 결국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장소를 필요로 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장소라는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다.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장소의 전통적 개념자체가 인문지리학적 개념이라면 점차 장소는 관계지향적인 심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장소개념을 구성하는 오랜 거주와 역사문화적 심상구조의 결합이라는 좁은 개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좀더 다양한 경험이 장소공간을 중심으로 겹쳐지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매우 불명확하고 흐릿해 보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때로는 부적절해 보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다. 그런 상태에서의 운동은 수많은 오해에 둘러싸여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각개약진하거나 산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의 부적절함은 그 개념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새로운 저항운동이 갖게되는 역동적인 변화 가능성의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 많은 매력을 갖게 된다. 우리가 장소적 개념은 저항운동으로부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갖는 새로운 가능성을 새삼스럽게 복원시킨다. 즉,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과 같이 뭔가 고매하고 영원한 본질로서 우상화되거나 권력화 되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거리로 내려와 우리들 사이에서 섞이며 변형을 겪으며 끊임없이 유동하는 삶의 방식으로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러한 저항운동의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결심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곧 강정이 되고 군산이 되고 밀양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장소의 등장을 알리는 단어이겠으나 이러한 장소의 상징성이 그저 물리적 공간에 고정되어 각자에게 소비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새로운 장소의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 각각의 저항운동이 실험하고 실천해야할 영역으로 머물러 있기도 하다.

군산으로 이어진 끈들 - 위험성들이 현실화하기 위한 가장 악한 고리...?

군산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지역이다. 우선 미공군기지가 일제 강점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는 군산지역이 한반도 내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방공간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끊임없이 식민지적 상황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한반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과 전쟁 가능성을 지역 내에 상존하는 삶의 위협으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군산 미공군기지를 둘러싼 다양한 투쟁과 또다시 국가에 의해 자기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고통을 그대로 떠안아야만 했던 하계마을 주민, 그들과 오래도록 함께 해오고 있는 다양한 활동가 그룹, 이렇게 군산이라는 장소를 둘러싼 지난 역사속의 미군군사기지 확장에 의한 다양한 싸움은 결국 이후 한국사회의 주요한 투쟁 현장인 평택, 제주 강정, 성주 소성리 등 원류에 가까운 현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군산의 싸움은 철저히 가려져 있거나 잊혀져가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불러내고 기억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기를 제안해 본다. 또한 군산은 새만금으로 대변되는 환경파괴와 생태계 말살의 경험이 여전히 축적되고 있는 지역이다. 새만금은 한반도 모든 지역의 광범위한 부동산 개발과 삶의 근거지에 대한 자본 침탈과 개발욕구의 폭발과도



같은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새만금은 보존과 생명이 아닌 개발방식을 둘러싼 온갖 주장으로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새만금을 불러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군산을 둘러싼 이 두 가지 혹은 더 많은, 수많은 한국사회 모순점을 병렬식으로 나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활동과제를 짚어준 군산이라는 삶의 터전으로서 장소가 가지는 가능성은 무엇이고 이 장소 특정적 활동의 실험은 어떻게 가능할 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슈 중심의 결합에서 벗어나 온갖 이슈와 투쟁과 삶을 저당잡고 있는 장소를 둘러싼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군산을 둘러싼 새로운 관계가 자유롭고 다양하게 전개됨으로써 이슈에 따라 불리고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이어질 수 있는 끈들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기존에 해오던 다양한 활동에 더해 새롭게 "장소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보기를 제안한다. 나에게 군산이라는 장소는 자체로 모든 투쟁들의 교차점이자 네거리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 또한 스스로 새롭게 발견한 나만의 장소성인 것처럼 그 길에 머물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얻어가거나 내어주며 엮고 꼬아서 두터운 끈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 본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그동안 잊혀지고 버려진 다양한 흐름이 역일 수 있는 가능성이 머물러 있는 곳은 평화바람이라는 단체다. 머무는 자리가 소중할수록 더 떠나야 했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떠밀려 나서기보다 먼저 나서는 사람들이 마련한 그 옥봉리 평화바람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시 하제 팽나무 아래에 서서

처음 팽나무를 볼 때 살짝 무섭기도 했다.

내 눈에 담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커다란 그 품과 수백 년의 고난을 온몸에 आरो새긴듯한 그 껍질의 두터움은 웬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아우라를 뿜어 내는 듯 했다.

더군다나 군산 평화바람에 간 첫 날, 문정현 신부님에게 은근슬쩍 지나가는 말로 "미군기지를 볼 때마다, 먼지 내뿜으며 달리는 덤프트럭을 볼 때마다 뽀죽한 철근이 척추뼈를 꿰뚫는 아픔이 온 몸에 저릿저릿 훑고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하였던 데다가



묘하게 팽나무를 볼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다. 내 머릿속을 온통 휘젓는 그 역사와 투쟁과 삶의 지난함을 팽나무는 언제나 그 구석에 서서 증명하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에게 매몰차게 묻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아니 팽나무가 수백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의 신화적 인간으로 변해가듯이, 신부님은 살아온 그 삶의 투쟁들 속에서 수백년을 지켜내는 나무가 되어가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를 볼 때마다 그 눈빛으로, 그 너른 품으로 던지시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새로운 장소성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나 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도 있고, 팽나무와 개인이 갖는 심정적 연대감일 수도 있으며, 하제마을을 휘젓고 지나가는 그 바람에 취해 생길 수도 있다.

아니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 버려지고 있는 하제마을을 지켜내려고 여전히 묵묵히 싸우는 군산 평화바람 식구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찾게되는 아주 단순한 마음에서도 생기겠지 싶다.

그렇게 작지만 서서히 자리잡은 작은 연대의 희망과 여전히 열려져 있는 변화의 가능성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가야할 것은 결국 질문이 아닐까?

왜 군산이며 왜 군산에 가려고 하였는가 ?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쯤 나는 온전히 청주에 돌아와 지낼 수 있겠다 싶다.

내가 살아가는 청주라는 공간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불온할 수 있어서 머물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 본다. 결국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려는 세상은 안전한 일상보다는 불온한 혼란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오늘도 군산으로, 혹은 다른 세상의 경계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삶의 지식을 쌓아가자고 강박처럼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맑스는 지식이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는 참여자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역사적 변화의 의식적인 행위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들은 쌓여가고 만들어 가고 나누어 가는 다양한 이야기와 삶의 지식, 그리고 연대의 심성을 바탕으로 하나하나의 행위자로 역사의 장소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야겠다.



평화





하제의 얼굴, 600년 팽나무

글 _ 평화바람 오이

“여그에 저런 괴물이 있었네이.”

팽나무를 보고 김희자 하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하제를 나가기 전에는 집들이 뽕뽕하게 들어찬 동네라 나무가 잘 보이지도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나무란다. 주민들이 거의 떠나고, 이제는 마을의 흔적을 찾기도 힘든 하제에 커다랗고, 울퉁불퉁하고, 괴상하게 생긴 팽나무가 있다.

“그때 한 집이 거그다가 제를 지냈다고 허대. 00이가 쪼매 관심이 있어가꼬, 배 나가고 들어오고 헐라든 항상 정성을 드리고 허고, 집 들오다가도 인사를 허고 그랬대. 어업을 헌 사람인게 했지, 부인이 밥을 허서 갖다 놓고 그랬어.”

“남쪽이 먼저 잎사구 피든 남쪽이 풍년 들고, 북쪽이 허든 북쪽이 풍년 들고, 참 희안허대. 이상허대. 한쪽만 딱 때려서 잎사구가 나. 영락없어. 봄 되든 일부러 팽나무 보러 가잖아. 어느 쪽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러 갔다와. 우리 아부지랑.”

“팽나무, 팽. 열매 그걸 따고, 떨어지든 줍고 허가지고 충을 맨들어가꼬 썩. 고무줄로 허가지고 충을 탁 치든. 글로 맞으면 열매나 아프다고. 바람 불면 팽이 쏟아졌어. 시상도 귀찮았어, 그거 쓸어낼라든.”

어부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풍년을 기대하며 농사를 짓치고,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준 팽나무는 나이가 600년에 가깝다. 300년 전에 마을이 형성됐다는 하제보다 더 나이가 많다.



군산미군기지 옆 바닷가 마을 하제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미군기지의 탄약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제마을 주민들을 내쫓았다. 마을 옆 탄약고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하다면 탄약고를 이전했어야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들 때문에 탄약고가 위험하다고 여겼는지 탄약고가 아닌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했다. 주민들이 아직 살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도, 하나씩 하나씩 집이 비워질 때마다 중장비가 들어와 순식간에 집을 무너뜨렸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집이 오늘 콘크리트더미가 됐고, 마을은 금방 황폐해졌다.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마을, 땅에 지금은 괴물처럼 생긴 팽나무가 서 있다. 모래가 아름다웠던 바닷가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집들이 들어서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하고, 바닷가에서 수륙제를 지내고, 할아버지 소나무 아래서 당산제를 지내고, 마을을 비집고 기지가 들어서고, 마을 옆으로 탄약고가 지어지고, 바다에서 조개를 잡고, 조개껍질이 산을 이루고, 바다가 막히고, 다시 기지가 넓어지고, 집들을 부수고, 마을이 사라진 지금까지 600년 동안 팽나무는 그곳을 지켜왔다.

국방부는 집을 부수고, 전신주를 뽑아 마을을 없애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철조망을 쳤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곳이 정말로 버려졌구나, 끝났구나.’라고 여기도록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전쟁기지 옆에 자연, 사람들의 삶을 지켜온 팽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사람들은 팽나무의 이야기를 들었고, 팽나무 지킴이가 됐다.

팽나무 지킴이가 만들어진 것은 2019년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연 <천년하제> 전시를 통해서였다. 팽나무는 평화로운 마을을 없애고, 그 땅까지 차지하려 드는 전쟁기지의 철조망을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제를 지켜온 팽나무를 이제는 우리가 지키자는 마음이 모아졌다. 초반에 몇 번 서로 만나기는 했지만 팽나무 지킴이는 함께 계획을 만들고, 함께 실행하는 모임이 아니다. 사실 누가 회원인지도 잘 모른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킴이가

되어 팽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누군가는 팽나무를 포함해 하제마을의 식물들을 조사하고, 하제의 역사를 발굴하는 작업을 한다. 군산시와 함께 팽나무를 군산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도지정문화재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올해 6월 팽나무를 지키자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32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냈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타고 시의회는 국방부가 하제의 땅을 미군기지에 넘기지 말 것, 팽나무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팽나무 앞에 보호수 표시석을 세우고, 주변 풀과 쓰레기를 치워 나무가 잘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팽나무를 방문한 사람들은 나무 아래 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난리법석)는 팽나무 앞에는 발을 일궜다. 고구마, 바질, 상추를 심었고 얼마 전에 고구마를 수확했다. 어떤 사람들은 목화밭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누구라도 팽나무를 자꾸자꾸 찾아가 만난다. 팽나무 지킴이들은 서로 해라, 하자하지 않았지만 팽나무를 방문하고, 팽나무와 우리가 연결돼있다는 흔적을 남기고, 팽나무를 지켜내려는 나름의 행동들을 벌이고 있다.

팽나무 지킴이 활동에 가장 열심인 양광희 님은 제천 간디학교 학생들이 팽나무를 만나러 왔을 때 “팽나무는 하제의 얼굴”이라고 말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얼’을 만날 수 있는 ‘굴’이라는 말이란단다. 팽나무가 하제의 자연, 사람, 삶, 시간을 만날 수 있는 하제의 얼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팽나무가 간직한 그 아득한 시간들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제의 바다, 땅, 바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하제의 얼굴, 팽나무를 만나보자. 그리고 함께 지키자.

나와 미군기지이야기

글 _ 평화바람 중서

1. 머리글

나에게 원고를 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 중 하나이다. 잡지팀에서 추가 원고 청탁이 들어 왔는데, 거절하지 못해 또 글을 적어야 한다. 내가 글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습관에 기초를 둔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문장을 만들면서 문맥을 잘 이루지 못하고, 맞춤법 잘 틀리고 이런 저런 이유가 생겨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맞춤법은 컴퓨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원고 속에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온전하게 적시 되었는가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지금까지 여러 원고를 통해 군산미군기지의 문제 등을 적었다.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적어 볼까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한 적이 없어 떨리고, 내 의도와 다르게 과대 포장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2. 운동 삶속으로 들어오다

나는 지방의 작은 전문대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대학생이 되면 모두가 데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학교 게시판 대자보에 4.3 몇 주기 집회, 몇 월, 몇 일, 몇 시 장소가 적혀 있었다. 그때 처음 데모에 참가했고, 그 이후 몇 번 더 참가하던 중 가톨릭학생회 동아리 선배가 풍물패 동아리에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학생운동에 입문하게 되었다.

학생운동을 하고 있을 때 농학연대(농민과 학생연대), 노학연대(노동자와 학생연대), 이런 단어를 접했다. 즉 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처럼 선배들은 이야기했다. 많은 선배 중 노동운동을 하는 선배는 한 명이고,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선배도 한명 뿐이다.

졸업을 하고 어떤 운동할까 고민하던 중 군대를 갔고, 군대에 있는 동안 내가 속한 학생조직은 조직사건으로 망가져 풀지에 고아가 되었다. 그 후 장사(편의점 점장)도 하고, 학교매점도 하고, 공장의 노동자가 되어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열심히 충실하게

회사생활을 했다. 내가 다닌 회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닭고기 전문 회사 하림이다. 부서는 물류팀인데 물류팀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물류팀은 하루에 수십만 마리의 닭들이 도축되어 보관되는 창고 관리와 전국으로 배송하는 트럭에 실어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입사하고 만4년이 넘는 시점에 삶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24시간 회사에 묶여 있고, 집에서 쉬거나, 직장 동료들 만나 술 마시고, 축구하고 이런 반복된 일상이 정말 인생일까?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우선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사표를 내고 회사 밖으로 나왔다. 회사 밖은 더 한가하고 무의미했다.

그러던 중 대학 후배가 익산 노동자의집 소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학교 다닐 때 시내에서 가두투쟁하고 마지막으로 모이던 익산 창인동 성당 내에 자리잡고 있던 노동자의집은 담이 높아져 있었다. 노동자의집에 하루, 이틀 가는 날이 많이 졌다. 가는 날이 많이 지더니 자원봉사에서 상근활동을 하게 되었다. 상근활동은 전주교구나 담당신부님의 공식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의집에서 지금의 평화바람 식구들도 만나게 되었다. 노동자의집은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체불금품 문제를 상담하고 사업주를 만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다. 처음으로 한 상담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여성이 부안에서 일을 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해 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업주와 전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나와 사업주, 노동자의 만남 자리를 잡았다. 나와 노동자는 승합차를 타고 부안으로 향하는데, 노동자는 매우 불안해하며 돈 못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사업주를 만나 체불금품을 줄 것을 요구하는 동안 사업주는 한 시간 가까이 푸념과 협박성 언어를 사용했다. 나도 같이 맞대응하던 끝에 퇴직금 전부를 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말에 노동자가 수긍하여 퇴직금 받았다.

익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나는 퇴직금 전부를 받지 못해 미안하고 했다. 퇴직금을 받게 되어 고맙다는 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기뻐했다.

3. 군산미군기지 옆에 살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 나는 평택 대추리에 살기 시작했다. 평화바람 숙소에 돌처럼 굴러 들어와 박히기 시작했다. 2007년 대추리투쟁은 정리 되어 가고 있었고 평화바람도 이사를 준비해야 했다. 평화바람은 군산에 터를 잡기로 결정하고 전세 350만원 집을 찾아 계약과 이사를 했다. 나는 평화운동이 뭔지, 군산미군기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 한 채 자리를 잡았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을 만나고, 군산평화대행진을 준비하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군산미군기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했다. 일본과 오키나와의 주일미군기지를 2007년 11월에 다녀왔다. 책을 통해, 문서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군산과의 연계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일본의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미군기지 감시와 평화운동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군산미군기지에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기지 내부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구글 어스를 통해 보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소음피해 구조 등의 공부를 깊이 하고 시간이 되면 혼자 차를 타고 기지주변과 하제 등을 관찰 하였다.

평화바람이 군산에 터를 잡고 군산미군기지에는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였다. 2007년부터 춘천과 원주에 있던 미2사단 소속 아파치 헬기부대의 군산 재배치를 위해 미군기지 인근의 토지를 국방부가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토지주들은 반발하면서 우리를 찾아 왔다. 우린 그들과 함께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였고, 철조망 공사를 몸으로 같이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토지주들이 정당한 토지보상가를 받기를 투쟁한 결과 처음 국방부의 매입가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에 합의하게 되었다.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라는 자생단체와도 협력을 하게 되었다. 군산미군기지 정문까지 자가용으로 5분도 되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보니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을 소음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아파치헬기 등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경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보였다.

현재 군산미군기지에는 미 공군과 한국 공군, 미 육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 공군은 F-16E 전투기 40여 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한국 공군은 F-16C 전투기 20여 대를 운용중이며, 미 육군은 PAC-3(패트리엇)포대와 미 2사단의 드론부대가 있다.

주한 미 공군이 사용하는 F-16전투기는 2021년 F-35B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가 발표했다. 한반도에서 구형 전투기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한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신전력무기로의 전환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 공군도 2020년 F-35A를 40대 구매했고,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되었고, 군산, 대구 등이 교체될 것이다.

군산미군기지의 공군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한 미2사단의 드론부대(그레이 이글 MQ-1C, 그레이 이글ER)가 군산미군기지에 배치 되어 현재 운용중이다. 그레이 이글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슬레이마니를 공습한 참수 작전에 동참하였다. 군산에 배치된 28시간을 비행하면서 레이더로 정보를 수집해 사령부로 보고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요인 암살 작전에 참전할 수 있다. 그레이 이글은 무인기다. 그레이 이글은 작전실에서 조이스틱(게임할 때 사용하는 조정기)을 가지고 조작을 한다. 그레이 이글을 조작하는 사람은 게임하듯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군산미군기지에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수한 것들이 존재한다. 미군기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산미군기지 한눈에 알아보기』책자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4. 평화운동을 한다는 것

나는 평화운동을 몰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고, 평화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평화라는 개념이 내 머리 속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평화바람에서 운동을 하면서 평화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머리와 가슴에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느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화운동은 단순한 군사주의 반대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내가 만나는 모든 것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평화운동하고 있는 구중서입니다."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다.

긍정의 에너지도 많아졌고, 수긍의 마인드도 넓어졌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생겼다.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고, 군사주의 반대운동을 하면서 평화운동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 더 배우려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허상

글 _ 평화바람 증서

1. 들어가며

'새만금'이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져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의 '만'(萬)자와 김제평야의 '금'(金)자를 따서 새만금이라 지칭하게 되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김제·만경평야는 예부터 '금만평야'로 불렸는데, 새만금은 이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이다.

새만금이라는 지역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정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 후보인 노태우 씨가 전라북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라북도 부안군부터 군산시에 이르는 총 연장 33.9km 방조제 건설과 내부개발 사업은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새만금 내부의 총 면적은 약 1억 2천만평 이고, 육지 계획이 8천만 평, 담수가 4천만 평으로 서울시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2006년 4월에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완공했고, 2010년에 방조제 공사 완성과 도로 개통을 하였다. 물막이 공사 이후 못 생명들이 죽어갔고, 새만금 내측의 수질은 6급수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환경부 용역조사 보고서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새만금 내측의 방수제 공사와 다리, 도로 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공업용지, 농업용지, 수변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십수 년이 되어가고 있다. 새만금은 국민들의 세금을 먹는 시궁창이 되었는데, 정부와 전라북도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업용지는 거의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서 유치한 공장이 아직 10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공업용지 조성비용이 3.3m²당 1,000만원을 넘는다. 새만금은 계속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개발하려 하고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도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

방수제

방조제 내부에 육지를 만들기 위해 쌓는 제방.

복식간척에서 방조제 내부에 추가로 독을 쌓아 육지를 만들기 위한 제방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방조제 33km, 방수제 125km, 배수갑문 2개소가 설치되었다.

2.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려는 의도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2012년 새만금 개발법을 제정하고 국토부를 주무부처로 하였으며 2013년 9월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다.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및 마스터 플랜에 국제공항은 없었다. 전라북도가 국제공항을 추진하려 할 때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수요와 공급 등을 산출하여 경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산되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 가장 크게 부각시켜 말하는 것이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피력해 왔다. 그러나 지금 계획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과는 동떨어져 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기 힘들어졌을 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평가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수행한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 면제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

새만금 개발청은 기업유치 실패를 거듭하던 중에 드넓은 공항부지라는 사용목적이 생겨나 좋을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총 면적은 약 1.8백만평(6.0km²)으로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를 합친 면적이다. 전라북도지사는 업적을 쌓았다는 명분을 만들기 좋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이용율을 높였다고 자랑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3. 새만금 국제공항 어디까지 왔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2017년 항공수요 조사연구, 2019년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등을 시행했다. 사전타당성 결과를 발표하기 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 되어 발표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KDI에서 진행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총 사업비 7,7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지는 군산미군기지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져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한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은 아시아권이고, 항공기는 C급(보잉 737, 에어버스 320)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활주도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 공항의 규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0년 7월 6일 착수하였다. 국토부의 계획은 2024년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공사를 착공한다.

4. 새만금 국제공항 과연 경제성은 어떻게 될까?

호남권에는 2007년 완공한 무안국제공항이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미래와 경제성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이다.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완공 당시 3,000여억 원의 국민세금으로 만들어 운영을 했다.

전라남도의 인구수 약 180만, 광주광역시 인구 140만 명과 전라북도의 인구(약 180만 명) 중 상당수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만들었지만 무안국제공항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적자는 모두 공항공사와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의 최근 5년 연간 이용객 수는 △2015년 31여만 명 △2016년 32여만 명 △2017년 29여만 명 △2018년 54여만 명 △2019년 89여만 명 이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가 있어 그런지 8월 기준 10만여 명 이었다. 그리고, 무안국제공항은 매년 적자가 거듭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적자 현황은 △2017년 139여억 원 △2018년 137여억 원 △2019년 118여억 원 △2020년 8월 기준 97여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제공항 이용객이 연간 90만 명이 사용해도 100억 원의 적자를 본다.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봤을 때 새만금 국제공항은 무안국제공항보다 좋은 상황이 될 수 없다.

전라북도 최대 도시 전주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약 1시간 남짓 소요될 것이다. 전주에서 무안공항까지 1시 30여 분(약 130Km) 소요된다. 충청권에서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약 50km에 불과하다. 이런 지리적인 위치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성공할 수 없는 기본적인 구조다.

국민의 세금 7,796억 원으로 만들고 적자가 계속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무안국제공항과 불과 1시 30분 거리에 또 새만금 국제공항을 만들어 국민들의 세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미군기지

군산미군기지와 불과 1.3km 떨어져 새만금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 전라북도민보다 미군이 더 환영할 것이다. 전라북도가 요구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미군측에서 보였던 반응들도 살펴보아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외교부, 새만금개발청 등이 참여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을 잇는 유도로(taxiway) 개설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이 요구한 유도로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이나 착륙한 뒤에 이동하는 도로를 말한다.

즉 국제공항과 미군기지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속내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함께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주관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민간공항이어도 미군들의 무제한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과 미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반도뿐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는 아시아 지역 어디든지 군사 작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훈련, 비상착륙 등의 상황에서도 유도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를 사용할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이 군산시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새만금 프로젝트 지역에 두 번째 활주로를 국제공항에 추가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개발은 군산시와 미군에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2013년 9월 서신을 통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군산 서쪽 합당한 위치의 제2활주소에 대한 계획을 공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항이 만들어지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처럼 민간공항과 군사공항 인접해 자리잡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향후에 미군뿐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것이다. 두 개의 각기 다른 공항이 존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관제권(비행기 입,출입 통제 권한)을 누가 갖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반도는 군사적 목적이 우선되는 상황이다. 군사적 훈련과 유사시 대비 훈련이 발생하게 되면 관제권은 당연히 군측에 넘어가게 된다. 지금도 군산 - 제주를 오가는 민항기가 미군의 훈련으로 활주로를 제시간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가 미군측이 지정한 비행안전지역에 해당되어 군이 민간보다 우선 적용되는 곳이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입지 위치 또한 맞지 않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민간항공기들은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주를 이룰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설계가 C급이라고 밝혔듯 대형 민간항공기(B-747, A-380기)는 이착륙을 할 수 없어 가까운 동남아시아 운항이 가능한 민간항공기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국국적의 민항기는 미-중 갈등이 발생하면 입출항에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미군기지라는 보안시설위로 중국국적의 민항기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안 국제공항이 세금 먹는 공항이고, 새만금 국제공항도 세금만 축내는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공군과 같이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군산미군기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입장에서는 새로운 활주로를 독자로 사용하겠다는 욕심이 생길 것이다. 적자 투성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대한민국 공군기지로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정부 부처 간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새만금 국제공항은 미래적이지 않고,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지금 새만금은 해수유통이라는 중요한 현실을 맞이 하고 있다.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 갯벌을 되살릴 수 있는 곳이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헛된 토목 사업과 군사주의 팽창을 가져올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평화

글 _ 딸기 (평화바람 활동가, 강정마을 지킴이)

2020년만큼이나 모든 계획들이 수정되고, 미뤄지고, 취소된 시절이 있었을까. 적어도 내가 산 인생에선 올해가 가장 큰 변화의 시간임은 분명하다. 전 세계가 불타고 있다고 할 정도로 호주에서,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남미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몇 달째 지속되었고 현재까지도 새로운 불이 피어오른다. 유례없는 가뭄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한국은 50일이 넘는 장마에 강이 넘치고 제방과 산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내렸다. 한쪽은 물이 말라가고 한쪽은 너무 많은 물이 내려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지구가, 삶의 터전이 지금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 지구적인 균형의 훼손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간의 삶 전체를 요동치게 한다. 지금껏 만들어 놓은, 쌓아온 것들이 무색해지고 새롭게 출현하는 삶의 방식들도 우리를 구원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택트 경제를 가장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더 없이 늘어나는 처지 곤란의 쓰레기들, 더욱 불안정해지는 일자리, 버는 것이 없어도 그대로인 임대료, 돌봄 없이 집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온라인 수업에 비춰질 집의 초라함이 부끄러운 아이들... 코로나19가 보여준 단면들은 전 세계를 휩쓰는 재앙조차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무한 경쟁의 시대, 전쟁 같은 삶은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앙은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곧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야 말 것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온갖 비명들이 들려오는데도 국방관련 예산들은 오늘도 굳건히 증액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월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00조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무기를 사거나 개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국은 1991~2020년 까지 30년간 727조 원을 국방비에 투입해 왔고 이중 문재인 정부 3년간은 140조 원을 사용했다. 2017년 세계 12위로 평가되던 한국 군사력은 2020년 세계 6위로 뛰어 올랐다. 참으로 아이러니 한 것은 2017년은 4.27판문점 선언을 통해 분단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비는 적극적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최소한 동결조차 되지 않고 2020년에는 발표된 국방 중기계획은 더욱더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벌써 평화가 왔어야 했건만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이쯤 되면 국가가 이야기하는 평화의 속내가 무엇인지 의심을 해 봐야겠다.

한국 사회는 식민시대와 전쟁,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폭력으로 20세기를 살았다. 급격한 변화 속에 21세기를 맞이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쌓아 올린 금자탑이 너무 높아 길고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졌다. 특히 한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가고 삼대에 걸쳐 그 이야기가 전달될 만큼의 시간인 70년 동안 분단된 상태로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의 내 삶과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오래된 전쟁은 익숙하다 못해 무섭도록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미 이러한 분단의 폭력이 내면화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본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나와 너를 구분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저지르는가. 왜 우리 편이 아니면 '당해도 싸다'고, '더 당해봐야 안다'고 생각하게 될까. 내 편과 니 편을 나누는 마음,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나는 이것이 뺏속까지 자리한 우리 안의 군사주의, 분단 폭력의 구체적인 모습이 라고 생각한다. 다양함을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나 평등, 인권이나 양심이 아닌 국가가 허락한 양심만을 합법으로 허용해온 한국의 식민시대와 전쟁, 분단과 독재의 역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기회, 상상할 기회를 박탈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법이 ‘국가보안법’이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여전히 그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국가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여전히 국가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사력에 의한 안보, 국가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안보이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안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이 나라와 어긋나 버린다. 판문점에서의 평화를 말할 때 한편에선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주민들이 강제로 진압된 채 성주에는 사드장비가 반입됐다. 군산미군기지에는 미군의 탄약고로 인해 644세대의 주민이 고향에서 쫓겨나고 ‘살인무기’라 불리는 무인드론 부대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창설됐다. 강정에서는 핵항공모함이 입항해 전 세계 해군들의 무력을 홍보하는 관함식이 열렸다. 평택미군기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을 들여와 세균전을 위한 실험에 사용하고 있다. 평화의 시대에, 남북미 정상회담의 시대에도 여전히 분단 상태를 이용해 한반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들은 강화되고 전쟁벨트는 완성되어 간다. 판문점 선언과 평택, 군산, 강정, 성주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이의 부조화는 국가를 위한 안보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국가를 위한 안보’는 오랜 시간 민중들의 삶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빼앗아 왔다. 2006년 평택미군기지확장

을 위해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벌어진 행정대집행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막강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작전명으로 대추초등학교를 파괴했다. 대추리 아이들이 뛰어 놀고, 주민들은 풍물을 치고 밥을 나누던 그곳이 비명과 울음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속수무책으로 학교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날, 그때의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2012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단 1분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손을 PVC 파이프 속에 넣어 연결해 스스로 인간 체인이 되었을 때 경찰병력은 망치와 전기톱으로 파이프를 깨부수었다. 파이프 속에 손을 넣어 서로 연결했던 사람들과 지켜보던 사람 모두 가차 없이 들이닥친 폭력에 까무러쳤다. 국가를 위한 안보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경찰 폭력과 사법부의 불공정한 재판, 사회적 낙인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뤄진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군사주의 이념은 우리의 목을 짓밟고 있다.

전쟁을 끝내지 못한 휴전의 상황에서 남북의 적대, 긴장이 지속되는 한 분단의 비극, 폭력의 연대기는 국가를 위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70년째 이어지는 오늘, 오늘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바로 오늘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누릴 평화는 국가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 인권과 환경을 위한 안보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이다. 70년을 옥죄어온 전쟁과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평화를 시작하자. 더 이상 내일로, 그 다음날로 계획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 오늘이 바로 우리가 전쟁을 끝낼 때이다.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세계 1억명의 서명!

홈페이지 : endthekoreanwar.net

인스타그램, 트위터 : [endthekoreanwar](https://www.instagram.com/endthekoreanwar)

페이스북, 유튜브: [KoreaPeaceAppeal](https://www.youtube.com/KoreaPeaceAppeal)

홈페이지로 접속해 서명을 하시면 등록하신 이메일로 서명인증 메시지가 갑니다.

서명인증 이미지를 개인 SNS에 올리시고 주변 친구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 해 주세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자주 가는 카페, 빵집, 세탁소, 책방, 병원... 사람들이 모이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단골 가게를 평화의 가게로! 신청서를 입력해 주시면 포스터와

서명용지, 큐알코드 스티커 등을 배송해 드립니다.

신청하기 -> <https://bit.ly/3mSloFO>

매주 월요일은 Peace Monday!

12-13시 어디에 있는 종전 캠페인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에 함께 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캠페인을 알리는 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서명해주세요**



endthekoreanwar.net



여기 서명해!

노랫말 _ 공룡 재환

한국전쟁을 끝내는
전세계 1억명의 서명!
캠페인송



한국이란 나라에서의 삶이 전쟁처럼 느껴졌다면
아니, 그저 살아남길 비는 포로처럼 느껴졌다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며 대신 죽을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면
그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없애 버려야 할 것 같다면
그래서 그걸 저주하는 일을 삶의 이정표로 삼았다면
자기는 걸릴 게 전혀 없단 듯이 감시의 눈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면
그건 이 전쟁과 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일 거야

매일이 무서워서 무서운 줄 몰라. 이 공포를 정의로 알고 살아.
우리편이 아닌 죽음엔 무감하지만 언제 내가 또 적으로 몰릴지 몰라.
우리 이 전쟁을 끝내자는 약속을 하면 어떨까?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가 찾아오길 원한다면 여기 서명해.

여기 서명해.
여기, 지금, 일단 서명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 전쟁을 끝내자.

여전히 기지는 넓혀지고 사람들은 쫓겨나
삶을 잃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결국 전쟁에 목을 매
당해본 사람은 소릴 지르지만 힘 센 사람들은 그 입을 막아
그래서 우린 이 전쟁을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군사 경쟁 아닌 협력을 위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미워하며 사는 건 지겨워. 이 평화를 일상으로 가져오길 위해.
이 전쟁을 끝내자는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어.
나부터 서명할게. 그리고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1억명을 모을 거야.

스톡홀름 어필, 2억 8천 명의 서명, 베를린 어필은 5억 명
절대 많지 않아. 세상을 뒤집어 엎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70년의 분단, 70년의 냉전, 70년의 불안, 70년의 폭력과 아픔
계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 수 있으니까. 여기 서명해

여기 서명해
여기, 지금, 일단 서명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이 전쟁을 끝내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운동의 페미니즘적 접근

강정 + 여성 + 병역거부 + 선언을 사례로

글 _ 최혜영 (강정친구들 사무국장, 강정평화네트워크 회원)

1. 들어가며

반군사주의, 평화운동에 있어 여성들이 처음부터 주체가 된 것은 아니었다. 밀양 송전탑 싸움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밀양 할매가, 강제로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에 앞장서는 부녀회가, 또 제주에 지어지는 해군기지를 막겠다고 24시간을 공사장 정문에서 버티는 강정지킴이가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로 눈에 띄기 시작했다. 평화운동에서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는 폭력의 피해자들이 여성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의 존재 방식이 더 중요하다. 2018년 숲이아의 병역거부 이후 이어진 강정 평화활동가 에밀리, 엄문희, 최성희의 병역거부선언을 통해 평화운동 속에서 페미니즘이 어떤 균열을 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군사주의와 젠더화 - '만들어진 남자' VS '보호당하거나 희롱당하는 여자'

군사주의란 군사영역과 비군사 영역의 통합된 상호관계를 말한다. 비군사 영역이라 하면 대중문화, 패션까지도 포함된다. 군사화란 “위계질서와 복종, 무력 사용에 대한 신념 등 군사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군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군사적 태도를 내면화 하는 것”을 가리킨다. 1)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다양한 남성성/들을 주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유지한다. R. W. 코넬은 헤게모니적 규범을 엄격히 실천할 수 있는 남자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많은 남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한다고 설명한다. 2)

우리나라는 군사화의 정도가 깊다. 병역거부가 사회운동이 된 것은 2000년대다.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조차도 군사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시아 인로는 군대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전사로서의 남자다움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여자다움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 신시아 인로,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김엘리 외 옮김, 바다출판사, 2015, 25쪽.

2) R. W. 코넬 《남성성/들》, 안상욱 외 옮김, 이매진, 2013, 123~128쪽

3) 신시아 인로,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김엘리 외 옮김, 바다출판사, 2015, 4장 참조

그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과 단일한 위계질서, 성별 분업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여러 제도적, 신념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군인은 남성적 존재로 여겨지는데 이는 군사 영역은 곧 남성의 영역으로 젠더화된 것이다. 군사주의의 역사와 현장에서 '여성'의 자리를 지움으로써 근대적 군대제도의 형성과 '젠더' 분할 통치 했다. 군대를 감으로써 '너는 사나이야, 1등 시민이야'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군사주의란 군사 영역이 시민 영역을 지배하거나, 호전적인 가치가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며, 군사화는 위계질서와 복종, 무력 사용에 대한 신념 등 군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군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군사적 태도를 내면화 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강정에서 여성을 대하는 방식은 보호하거나 희롱하는 것이었다. 고착과정에서 사람이 숨이 넘어가도 고착 해제 명령 없이는 한 발짝도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공사장 앞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식판과 함께 들려 나갔고, 스크럼을 짜고 손을 잡고 있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꺾어 들고 나갔다. 그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경찰들이 여경을 마치 '누이들'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상급 경찰은 여경들의 직위로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기 일쑤였다. 그리고 여경들은 여성 활동가들의 제압이 끝나면 남자 경찰들의 보호 속에서 에어컨 나오는 차에 들어갔다. 여경들이 머리카락이라도 풀어지고 생채기라도 나면 상급 지휘관은 관련자를 색출했고 반드시 보복했다. 그에 반해 현장에서 투쟁하던 여성들은 멍투성이에 속옷 끈이 풀어질 정도로 고착을 당해도 관련자들이 처벌되거나 책임지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3. 숲이아, 에밀리, 엄문희, 최성희의 병역거부선언

젠더화된 사회에서 비남성들이 '지지자' 혹은 '조력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병역거부선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2018년 여름 서울 레드박스에서 숲이아는 자신의 말로 병역거부선언을 했다. 숲이아는 선언문을 통해서 성별이분법과 군대가 서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관계라는 것, 따라서 군사적인 세계에 맞서기 위해 일상에서 강요되는 지정 성별을 거절하겠다는 의미를 밝혔다.

저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로 스스로를 정체화 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갇히기도 하지만, 이분법을 벗어나 이분법을

거부하며 사유하고 행동하고 살고있는 사람이에요. 젠더가 흐르듯 변한다는 의미의 젠더플렉스이거나 역시 젠더가 유동적인 젠더플루이드 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저의 신체와 제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범주에서 트랜스젠더인거죠.

경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제 몸은 경계선이고 제 몸이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삭발을 하고 다니다보니 종종 “여자야 남자야?”하는 외침을 듣는다던지, 누군가 위 아래로 뚫어져라 쳐다본다던지 하는 경험을 많이 해요. 저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이나 차별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퀴어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피해나 차별을 입기도 하죠. 여성이자 퀴어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도 있고요.

얼마전 안희정 무죄판결이 나온걸 보고 사법부에서 여성들에게 “당신들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선포한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이야기 했죠. “여성인 나에게 조국은 없다”라고. 원래 비국민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법부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을 시켜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비국민성과 제 몸이 전쟁터라는 걸 깨닫고 나니 이게 병역거부वाद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제 몸이 전쟁터인데, 더 큰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 숲이아 병역거부선언 중에서

이분법 세계와 남성화된 사회에 익숙해진 말들을 거절하기, 편하고 쉬운 말들을 버리고 '다른'말들을 모색하겠다는 숲이아의 선언은, “어떤 존재든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포착”하려는 흐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숲이아의 병역거부선언은 그 다음 해 5월 강정에 사는 최성희, 엄문희, 에밀리(왕유센)로 이어졌다. 이들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군사기지에 맞서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활동가이자, 제주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최성희는 “병역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유지와 재생산 체계에서 핵심적 기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거부 이슈는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이슈이며, 여성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계에 질문을 던지는 과정”으로 여성병역거부 선언의 의미를 밝힌다.

오랫동안, 50대 중반이 되도록 병역거부 이슈는 ‘나의 이슈’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보면 이 체계는 여성이 병역거부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성공한 편이다. 내가 여성으로서 병역거부 선언을 하게 된 것. 그것은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재생산을 돕는 나의 ‘공모’에 대한 질문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질문 때문이다. 왜 병역거부인가? 왜 선언인가? 그것은 병역이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유지와 재생산 체계에서 핵심적 기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거부 이슈는 본질적으로 여성들의 이슈이며 여성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체계에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사안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선언이란 공적인 형식은 공유를 전제로 한다. 선언의 배경과 목적이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환기시키고 호소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나의 선언은 이 사회를 향한 질문이다.

- 최성희 병역거부선언 중에서

4) 나영정, <엄문희, 최성희, 왕유센의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며 - 이 세계는 여성이 병역거부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한 편이다>, 2019, 전쟁없는세상 <http://www.withoutwar.org/?p=15319>

또한 엄문희는 “모든 나의 정체성은 주류 권력으로부터 간단히 거부당했습니다. 단, 여성인 것만 빼놓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묻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정상화된 모욕을 동시에 선사하는 이 폭력의 구조는 여성이 전시에, 재난시에, 안보가 우선되는 상황에서 입는 폭력이 부수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킨다. 4)

내가 병역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여성인 이유로 병역의 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그 문제를 논의할 아니 최소한 사고할 권리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성은 전쟁을 말할 권리도, 그

전쟁에 동원되지 않겠다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맞습니까? 여성이 병역에 관해 당사자에서 분리되고,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병역의 당사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내가 여성으로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여성을 아예 논의의 당사자에서 배제하는 것, 여성을 약자로 상정하는 것, 희생자화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군사주의적 발상입니다. 여성이 전쟁 당사자, 병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전쟁과 폭력의 본질을 은폐합니다. 이것이 가부장 권력과 주류 전쟁 권력이 그간 여성을 착취하고 동원한 방식입니다. 혐오를 재생산하고 여성을 논의 주체에서 제외하기 위해 권력이 요구하는 성 역할과 지위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으로서 내가 병역을 거부하는 일은, 어떻게든 대상화시키려는 기존 권력에 저항해 주체가 되려는 행위입니다.

- 엄문희 병역거부선언 중에서

대만 출신으로 제주에 정착해서 사는 에밀리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평화시민'으로서 병역거부선언을 했다. 국가주의적 사고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국민'이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거절하고, '평화시민'으로의 부단한 '정체화' 과정을 시도했다.

이 병역거부 행동을 통해 이분법으로 나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에게 그리고 다른 다양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에게 모두 평등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이 구조를 거부합니다. “남자가 만든 전쟁에서 여자가 희생자가 된 이미지”로부터 꼭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울지마, 남자인데...”,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인간이 되지” 같은 말들은 많은 사람, 심지어 여성의 입에서도 나오는 흔한 말입니다. 이 작은 폭력을 전쟁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는 이분법으로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전쟁에서 그리고 전쟁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모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회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른 다양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부당하게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강요하는 구조에서 그런 역할과 기대에 맞춰서 살아남기에 모두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인정을 하고 애통해하며 치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병역거부 선언을 통해서 전합니다.

- 에밀리 병역거부선언 중에서

에밀리는 군사주의적 국가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틀에 의해 유지되며, 군사주의가 스며든 일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의 아픔조차 제대로 인식하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픔을 나누려는 것이 곧 병역거부의 선언이자 그러한 선언의 실천이 된다. 또 에밀리는 “군사기지는 군인들이 닫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닫게 해야 하는 것이고, 군사기지 안에 서 있는 군인들에게 총을 내리라고 말하기 전에는 제가 먼저 총을 내려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 손에 실제로 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폭력의 구조를 깨지 않은 이상 제가 바로 그 사람이 총을 들게 만든 사람 중의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거부 선언으로 무기를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선언의 의미를 쓴다.

이들의 선언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것, 전쟁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것, 기지 밖에서 기지 반대 운동을 하겠다는 것, 국경을 넘어서 평화를 말하겠다는 것, 젠더를 가시화하면서 젠더이분법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5) 비남성들의 병역거부 선언은 당연시되여온 성별이분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다양한 존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만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군사주의적 국가와 사회를 유지해 온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5) 나영정, <엄문희, 최성희, 왕유첸의 여성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며 - 이 세계는 여성이 병역거부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한 편이다>, 2019, 전쟁없는세상 <http://www.withoutwar.org/?p=15319>

4. 나가며

친구들의 선언은 '나는 누구인가'를 넘어 '나는 무엇에 저항하는가', '어떤 고리를 끊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균열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남성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병역거부가 나의 문제로 다가오게 했다. 또 이분법적으로 성별을 나누지 않고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해군기지와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먼저 온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병역거부 선언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사람



비밀의 정원에 함께 가 볼래요? :

하제마을 주민 최경순

글 _ 공룡 설해

난리법석 프로젝트를 하면서 군산에 가면 옥봉리에 있는 평화바람 집에 머물게 되는데 자그마한 앞마당에는 수국이며 로즈마리며 이름을 알 수 없는 나무와 꽃들이 예쁜 정원을 이루고 있다. 어느날 오이(평화바람 멤버)에게 정원이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니 오이가 “저는 꽃 안 좋아해요”하며 손사래를 친다. 그냥 있어서 키운 거라고 조금 의외였다. 일전에 함께 어느 건물에 들어갔을 때 오이가 시들어 가는 커다란 화분을 보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물을 주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남의 공간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 장면이 꽤나 인상적으로 남아서 그 후로 나도 어딜 가든 그 곳에 있는 화분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첫 만남

이거는 볼 것도 없어 맨 꽃이어

오이를 따라 최경순 어르신 댁에 처음 찾아갔을 때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온통 노란 코스모스 같은 꽃들(금계국)이 만발해 있었다. 그리고 유독 베란다 앞으로 백합과 장미 같은 것들이 촘촘하게 피어있는 집이 눈에 띄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바로 그곳이 경순님이 사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들어가 인사를 드리며 바깥에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라고 하신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최경순 어르신은 하제마을에 살다가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이주하셔서 현재 군산 시내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다. 오이는 그렇게 이주하신 분들의 자취를 좇아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난리법석에서 준비한 행사 때 하제마을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최경순 어르신을 함께 찾아뵙게 됐다.

우리가 온다고 경순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 상자 속에 담긴 수백 장의 하제마을 사진이었다. 그것도 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취미로 그리하셨단다. 남편인 고종섭 님은 마을이장과 어촌계장을 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다 챙긴 분이라고 하셨는데, 일찌감치 카메라도 하나 구입해서 하제마을의 기록자 역할을 자처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경순님 말마따나 절반은 꽃 사진이었다.

꽃집이라고 하 동네에서도, “꽃집 언니~” 그러지. 하하. 꽃집 언니로 통하지.

우리 아저씨가 다 심은 거여.
경로당 앞에 있는 나무들도 그러고 보건소 앞에도

그러고,
우리 산에다도 심어놓고, 할머니 소나무 있는 산에다도, 하얀 목련도 있었고 자목련도 있었고, 감나무, 뽕나무.. 그래도 시방도 다 있어 거그가.

우리 화단 발 꽃이
하제 집 거그 문 앞에 들어가는 데 있던 꽃이거든.
이것 보고 피랑카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눈이 수북하게 와서 쓰러지더라고.

여기도 몇 나무 떠 갖고 와서 심고 그랬더니
새가 열매를 겨울에 먹을 게 없응께
이것을 먹고 똥을 싸면 몇 나무가 났어.
올해 꽃이 많이 폈어. 올겨울이 열매를 맺을 거 같더라고.

경순님은 동네에서 함께 나고 자란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안동네 초가집에서 30년을 살다가 지금의 마을 입구 쪽에 붉은 벽돌집을 지어 20년 가까이 살았다. 공군 중위로 전역한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홍반장 같은 분이셨나 보다. 마을에 전기와 수도를 끌어오고, 가장 먼저 집에 전화를 놔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며 썼다.

마을 일에 열심인 할아버지가 활동에 쓰는 돈과 알게 모르게 얻은 보증빚에 집안 생계의 많은 부분은 경순님의 몫이 됐다. 바닷일도 하고 농사도 지었지만 50대 이후로는 하제마을에서 먹고 살 거리도 점점 줄어 혼자 서울로 올라갈 결심을 하셨다. 가락시장이 생긴 지 2년째 됐을 때 올라가 20년간 회장을 해서 돈을 벌었다. 가끔 할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면 양재동 꽃시장에서 꽃을 그렇게 몰래 사다가 또 하제에 갖다 심으셨다고 한다.

애들을 못 가르치게 생겨서 내가 서울로 갔지.

가 갖고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건진 한 20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어. 허리도 꼬부라지고 일도 겁나게 많이 하고.	가락시장 생긴 지 한 2년 된 해에 아저씨 제대해 갖고 퇴직연금으로 빚 싹 정리하고 그리고 갔지. 돈 100만원 갖고 갔어 내가. 그래 갖고 우리 언니가 돈 대줘서 가게를 얻었지. 거기 시장 가니까 골목 골목에 막 시레기만 수북수북 했어. 밤 장사 하고 다 도매시장인 게 싹 다 가고 나면 아침에 우리가 싹 정리하고 거기다가 판을 벌리고 회장사를 했어. 잘 되얏어 그때는. 그때는 돈 벌었어. 그래서 애들 다 가르치고 여우고.. 진짜 나는 후회 없어 거기 가서.
내가 인자 돈 없는데 그런 거 꽃 사 갖고 간다고 한마디 하면 가만히 양재동 가서 사서 어다 감춰 놔. 그래 갖고 새벽에 그놈 들고 가서. 그랬어. 그래 갖고 심었어. 꽃만 샀어 꽃만.	
농사도 없지, 배도 못 해 먹지 희망이 없어 거그는 인자	
꽃, 나무, 우물, 정자, 학교... 공동의 소유로 마을에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함께 쓰고 나누던 것들이 보상금으로 환산되었을 때, 주민들이 분열되고 반목하게 되는 건 누구의 탓일까. 국방부는 2001년부터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킬 때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보상을 협의했다. 수십 년을 이웃으로 살아왔던 누구누구네 집에 ‘보상금	

얼마 얼마'라는 딱지가 붙고, 나무 한 그루에도 니 소유 내 소유가 갈렸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각자의 살길을 찾는 사이, 여럿이 함께 만들어진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경순님 또한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밝히지 않아도 이주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듯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변해버린 마을에 대한 상처를 동시에 갖고 살아가는 것은 경순님만은 아닐 것이다. ‘새만금만 안 막혔어도..’ ‘농사지을 땅만 있었어도..’ 하는 해묵은 아쉬움을 말로 꺼내어 본다고 해서 쉽게 사라질 원망은 아니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 가며 같이 고생스러운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도 쉽게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았다.	우리 애기로 하자면 자연이 많아 갖고 허기도 싫어. 재판 동안도 그렇고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 비석 있는 데까지 나무 다 심겼어.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보상은 다 받아먹고, 나무 심근 거 다 받아먹고.	이 비석 있는 데까지 나무 다 심겼어.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보상은 다 받아먹고, 나무 심근 거 다 받아먹고.
다 바뀌져 사람이. 인간이 바뀌진당게. 돈이다 다 환장해가.	다 바뀌져 사람이. 인간이 바뀌진당게. 돈이다 다 환장해가.
먼저 나간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애들하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나가서 살을라고도 하고.	먼저 나간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애들하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나가서 살을라고도 하고.
생각해 봐. 농토도 작지.. 지금 다 국방부로 들어가서 우리 같은 사람은 농토도 없고 뱃생활도 못 하고 그렇게 그냥 나왔지. 돈도 없이 나왔어 우리는.	생각해 봐. 농토도 작지.. 지금 다 국방부로 들어가서 우리 같은 사람은 농토도 없고 뱃생활도 못 하고 그렇게 그냥 나왔지. 돈도 없이 나왔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뱃생활도 하고, 거기서 고기도 나지. 새만금만 안 막었으면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조개탕 많이 냈어.	젊은 사람들은 뱃생활도 하고, 거기서 고기도 나지. 새만금만 안 막었으면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조개탕 많이 냈어.

바다만 나가도 먹고 살았어.	묻지 않아도 아는 사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 '둘이 이려고 저리고 혀야' 옛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서로를 기억해주는 존재. 경순님에게는 “우리 친구 삶은 내가 다 보장 혀. 내가 더 잘 알아.”라고 말해주는 깨복쟁이 친구 김희자 님이 있다.
땅을 파내면 조개가 이렇게 동동동동 뜨면서 물하고 같이 조개하고 있어. 그러면 막 망 만들어 갖고 가서 몇 망씩 잡아 갖고 배가 남실남실했어. 조개를 그놈 싣고 사람을 싣고 올라고 혀봐. 오다가 그게 얹어지고 큰일 났지. 한꺼번에 일곱 명인가도 죽었어 그렇게 하다가.	경순님이 부탁을 받아 난리법석 행사(할머니 보따리 캠핑)에 하제마을 이야기를 들려주러 오실 때 친구인 김희자 님도 함께 오셨다. 이제는 두 가구의 주민들만이 남아 있는 마을에서 두 분을 모시고 걸으며 이야기를 들었다. 집들이 사라진 하제마을의 풍경을 낯설어하시면서도 이야기를 잘 들려주기 위해 두 어르신은 주거니 받거니 하시며 애써 주셨다. 두 분이 들려주신 하제마을의 이야기는 마치 긴 대하소설 같아서 이곳에 다 옮기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서 말 그대로 이야기가 한 보따리였다. 미군기지 격납고가 생기기 전부터 마을을 가로질러 멀리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연애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했는지, 일제 강점기와 6.25 때는 어떻게 풍랑을 맞고 또 비껴갔는지, 80년대 이후 조개잡이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로 마을이 얼마나 커졌는지, 미용실이며 점빵이 있을 땐 어땠는지... 한참을 말씀하시다 “우리들 자서전 낼 터?” 하고 웃으시며 이제 하제 역사는 누가 쓸 거냐고 하신다.
# 할머니 보따리 캠핑	희자 : 탄약고도 더 바짝 왔네. 이게 전부 집터였는데 이렇게 빈터가 되어부렸어. 경순 : 쑥대밭이 되얏어 인자 여기가.
깨복쟁이 친구 그 친구 하나여	난리법석 : 많이 달랐어요? 저희는 이런 풍경만 봐서.
깨복쟁이는 옷을 발가벗은(깨벗은) 사람이란 뜻으로, 깨복쟁이 친구는 어릴 적 냇가에서 발가벗고 목욕하던 친구를 말한다.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훤히 다 알기 때문에 아직도 그때나 다름없이 가릴 게 없는 친구라는 뜻일 거다.	희자 : 저기 산 밑에 한약방이 있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훈장님이라 학교 안 당기는 청년들 서당 가르쳐서 5시 쯤 되면 청년들이 끝나고 올라오는가 봐. 올라오면 거기가 아주 음악실이야.

경순 : 우리 할아버지 노래 참 잘했어요. 희자 : 저기 샘가에 아가씨들은 버글버글하고, 하하.	열어서 당산제를 지내야 한다고.. 우리 동네가 안 좋아서 쓰것냐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더 고생들 허자고 그래갖고 했었어요.
난리법석 : 왜정 시대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희자 : 많이 살았당게. 경순 : 초가집이 많았지. 희자 : 중제도 한 20호, 너뒀는 한 댓 가구. 안동네만 한 20가구 있었고, 까침바우는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살았고.	경순 : 이것도 알아주도 않아 역사고 뭐고.. 희자 : 거시기 다 남아, 『태백산맥』처럼 다 나와 인자 또 나오면 후세들이 다 봐.
난리법석 : 언제부터 사람이 막 늘어났어요? 희자 : 노랑조개 나면서 한 80년대부터 그랬을 거여.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인구밀도가 높아서 면사무소에서 동네를 분리했잖아. 난리법석 : 600가구 2,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희자 : 집나게 살았어 하이튼. 움막 지고 셋방 살고, 옆방서 살고, 판자 구해서 살고. 경순 : 조개껍질 메꿔가지고 집을 짓고 살고.	난리법석 : 여기 사시다가 나가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오시면 어떠세요?
경순 : 여기에 우리 초가집이 있었어. 오 남매 다 여기서 낳았어. 이게 샘이 굉장히 깊었어. 저 아래가 샘 있느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먹었어. 물 떠다가 다달이 3일 날이면 다 손으로 떠방아 뺨아다가 새벽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시루를 찌가지고 찹푸락 놓고 당산 할아버지 할머니 소나무 추들고 받들어서. 우리는 여기다 기도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초사훗날.	희자 : 못찾겠다 피꼬리지. 아이고 이제서 후회 나지, 살기 싫었어. 태어나서 67살 먹도록 여기서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질리것어. 다른 데 사는 것 보고 우리 사는 것 보면은 너무나 낙후되고 벽지에서 생전 빛도 못 보고 살게 생기고. 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살아봤으면 그랬네. 도시 가서 살아볼게 그것도 아니고.. 어디 산골짜만도 못 허 도시서 사는 것이.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았지. 새만금만 아니었으면. 집도 좋게 지어놔것다, 참 운치도 좋았느디.. 나가기만 하면 뭐 돈은 백원이라도 갖고 온게.. 고되기는 허도. 인자 이 나이에 캐먹지도 못하지만.. 재밌게 살았느디 참. 아낌없이 주고, 손님 왔는데 반찬 없다고 하면 뭐 주고. 누가 뭐 있으면 자기 일 제쳐놓고 전부 가서 일 처리하고. 친구네 서울 갔을 때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상 치르고 누구네가 새로 집 지었다고 하면 그 집 뜰 정도로 다 메야서 다 정리하고. 경순 : 그런 일 하나는 참 생각나요. 희자 : 정이 좋아어. 객지에서 누구 와도 하나 텃세 않고, 오히려 더 위로하고.
희자 : 하제가 이렇게 될라고 미리 그랬어. 외지에서 어떤 양반이 며느리보고 어젯밤 꿈에 너희 친정 동네 당산 할아버지가 떠난다고 떠나더라, 친정에 가서 어른들한테 상의해서 거기다 기도를 드리던지 동네에서 일을 한번 해야겠다고 하더래요. 딸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양반이 회의를	경순 : 좀 그림기도 허고.. 아이고 인자 얼마나 살겠나 싶으고, 밭일도 작년까지 했나. 차 타고 다니면서. 밭이 아까워가지고, 들깨도 짜고 마늘도 심어서 애들도 주고

나도 먹고 그렇게 살었는지 인자 뭐 이렇게 늙어서 일도 못하고, 우리는 돈도 없고, 하하. 내년에 두릅 딸 때 전화해요. 잘 시기 맞춰 와야지.	그림과 ‘최경순’ 이름 석 자가 적힌 것을 보고 “이게 어르신 거예요?” 하고 여쭙보니까 “그러게 그런 것도 하라고 하대. 우릴 그렇게 아이 대하듯이 허” 하며 허허 웃고 마신다. 경순님이 그리신 거라고 하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 크레파스 그림과 텃밭 상자를 보고 있자니 웃기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훨씬 더 크고 멋진 것을 그렸던 사람인데…
# 최경순 님의 정원	사시사철 각양각색의 꽃이 만발한 하제마을이라는 작품을 그들은 아마 보지 못했을 것이다. 솔하게 생과 사가 갈리는 바닷가 마을에서 죽음을 목격하며 살고, 가부장제에 발 딛고 살면서 그렇게나 고된 노동을 해왔지만 거기가 경순님의 삶터였고 작품이었다고 누군가에게는 말해주고 싶었다.
추석이라 오이와 함께 경순님 댁에 인사를 하러 갔다.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째 바깥출입도 많이 못 하시고 친구들도 못 만나셔서 그런지 많이 답답하신 듯했다. 요새 그나마 활력소가 되어 준다는 미스터트롯을 함께 보다가 “커피 한잔 혀야지” 하시며 또 대접해 주시는데, 예쁜 커피잔이 눈에 띄었다. 가느다란 빨간 선이 원형으로 둘러 있는 도톰하고 뽀얀 컵이었다. 그릇이 좋아 보인다고 하니 "이런 것도 다 파이렉스여" 하시며 "이제 쓰도 안한다"고 찬장을 뒤져 오래된 접시들을 꺼내 몽땅 선물하신다. 한참을 그릇 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는 오이와 경순님을 보고 있자니 이렇게도 친구가 되는가 싶어 웃음이 났다.	그런데 사실 경순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 건 따로 있었다. 모퉁이 공간을 지나자 아파트 뒤쪽으로 한없이 펼쳐진(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비밀의 정원. 거기에 수국이 있었다. 활짝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나무들 사이로 작약이며 물망초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신이 난 오이가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꽃은 다 있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경순님의 저 뿌듯해하는 표정이란…
선물을 챙겨 막 일어서려는데 경순님이 아파트 뒤뜰의 정원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 후다닥 카메라를 챙겨 따라 가보니 아파트 옆 모퉁이 공간에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동네 실버 텃밭 정원’이 네모반듯한 화단들로 조성되어 있었다. 주변으로는 꽃무릇이며 나무들이 울창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그 자리엔 경순님과 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로 이주해 와서 일귀놓은 수국 밭이 있었는데 어느날 사람들이 찾아와 ‘텃밭 정원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내어 주셨다고 한다. 꽃무릇과 나무들은 남았지만 수국 밭은 군산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하고 트럭으로 몇 번을 떠서 옮겨 갔다. 지금도 16년 된 병꽃나무를 농어촌공사에서 자르려고 한다고 알려 주셨다.	분명히 나한테는 꽃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두 사람이 명자나무가 어떻고 병꽃이 어떻고, 나는 이름도 모르는 꽃 나무 이야기를 하며 폭풍 수다를 떨고 있다. 나무들 사이로 상쾌한 바람이 흘렀다.
세대 별로 분양한 듯해 보이는 텃밭 상자에는 손톱만 한 상추가 듬성듬성 심겨 있다. 명패에 크레파스로 그린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게 중요하지 :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하운기 위원장

글 _ 공룡 헤린

인터뷰는 군산지역연대 미디어 프로젝트 난리법석 활동 중 지난 5월 2박 3일간 열린 모색 워크숍의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됐다. ‘모색’이라는 워크숍 이름처럼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군산이라는 지역, 미군기지와 새만금 문제에 대해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 중 하나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는 난리법석 영상팀과 잡지팀, 음악팀이 참여했다.

인터뷰는 하운기 위원장님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진행됐다.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사무실로 함께 쓰이고 있는 이 공간은 미군기지와 걸어서 3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 지난 3월 난리법석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군산에 방문했을 때에 이어 하운기 위원장님과는 두 번째 만남이었다. 당시 미군기지 후문을 지나자마자 인가가 있는 마을이 보여 놀랐던 기억 그대로의 풍경이었다.

하운기 위원장님은 차를 권하며 반갑게 맞아주셨다. 인터뷰가 진행될 소파 앞 테이블에는 미군기지 피해와 관련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비행기 소음 측정 장비,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지도, 자동차 정비보다는 협의회 일정과 관련된 메모가 적힌 달력 보드가 이곳이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라는 걸 실감하게 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질문을 크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하운기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시작했다.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온 곳
알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 동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평생 사는 거예요. 제가 62살입니다. 59년생이에요. 여기 이곳에서 살다가 미군 기지에서 정비 일을 좀 했어요. 85년 정도에 미군 부대 들어가 한 5년 정도 일을 했어요. 해강산업이라고 해서 부대 기지 안에 택시가 26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정비원으로, 분야는 따로따로 있지만 저는 자동차 오토매틱이라고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자동변속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카센터를 열었지요.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2006년 10월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옥서면의 전 시의원과 우리 동네 어촌계장 및 유지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옥서면사무소에서 16개 마을 주민들이 모이고 해서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졌지.

협의회 위원장을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06년도 10월에 결성할 때 그때는 사무국장이었어요.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의 사인이 필요하더라고. 우리 활동하는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회의를 한번 열어서 위원장을 네가 하든가 내가 하든가 해야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일단 사무국장님 이 양반이 저한테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옥서면 소음피해 복지 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주 했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주를, 떠난다고 해도 사실상 사는데 우리 동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환경문제라던가, 소음 문제 관련해서, 공여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위원장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하게 됐어요.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주요 활동

- 2020년 군산 하계마을 일대 미군 공여계획 철회 요구
- 2019년 군산미공군의 공여지 반환 및 후문 확장 공사 반대
- 2013년 공항로 개설사업에 반대
- 2011년 군산미군기지 환경범죄(기름 유출, 석면 매립과 고엽제 살포,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등)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요구
- 2010년 전투기 소음피해 해결 요구

카센터 운영은 어떤가요.

하루에 아마 만 원, 많이 벌면 한 이만 원. 지금 제가 한국 공군, 미군들 하고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일을 하는 이상 이 사람들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에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 어떤, 어떤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안 온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너무 많은 미군기지 피해, 문제들이 있잖아요. 10년이 넘게 오랜 시간 이렇게 겪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협의회 활동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뭡까요.

내가 옛날부터 하면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걸 놓기가 참 힘들어.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지금 후회가 된다,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하는 거지. 내가 크게 뭐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대로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를 명칭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만 원이나 이만 원 벌면서 지금. 고집스럽게. 제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 원하는 것을 바꾸겠다는 희박한, 그 희박한 것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거고, 있어야 하겠죠. 아직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나한테 이만한, 이만한 거라도 근데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거 어떻게 다 얘기를 또 해.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수고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가. 야 너 정말 수고한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맙대요.

하운기 위원장님은 마지막 질문이 마무리되고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미군기지 비행기 소음 측정과 관련해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에 관한 얘기를 놓지 않으셨다. 눈앞에 이미 미군기지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인터뷰 중 종종 더 정확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시기도 했다.

난리법석은 3년 정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새만금 간척 사업, 안보라는 명분으로 유지 확장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 두 가지가 군산이라는 한 지역에서 만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려 한다. 난리법석의 이번 인터뷰는 군산미군기지 문제, 협의회 의 당면 이슈보다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10년 훌쩍 넘게 협의회 활동을 하는 하운기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된 대부분 질문과 이야기는 결국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이와 연결된 문제로 이어졌다.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삶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어렵듯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군 전투기 소음, 환경 범죄, 공여지 문제, 미군 범죄, 미군기지 시설 확장과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와 이주. 미군, 군사기지로 인한 문제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실감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묻히곤 한다.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의 일상화, 지자체도 한국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무력감이 주는 보이지 않는 폭력. 이것을 드러내고, 알려내고, 바꿔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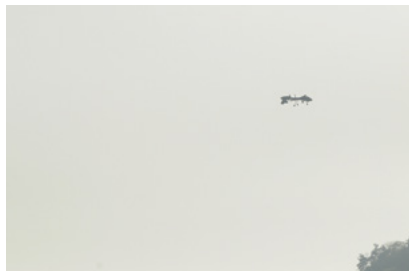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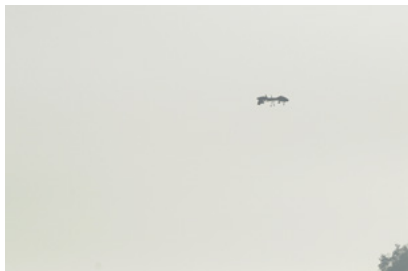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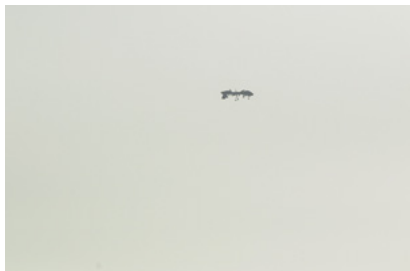
미군기지 피해 주민으로서 피해에 대해 말하고, 바꿀 것을 요구하는 과정은 무척 고단해 보인다. 하운기 위원장님은 그런 막막함과 지침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다. 알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 없는,

힘들지만 후회된다고 할 수 없는, 이곳을 떠나고 싶으면서도 쉽게 내어줄 수는 없는. 인터뷰 과정에서 보여주신 이런 복잡한 감정을 대책위원장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로 고정하는 것은 그의 지난 경험과 삶을 생략하는 실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알려 주고 싶어 하셨다. 이번엔 모든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또 찾아뵈실 것을 약속드린다. 더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다. 희박하지만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언젠가를 염두에 두며 지금을 직면한다는 것. 그 과정에 함께한 사람과 함께할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달걀로 바위가 쪼개질 때까지 처야하는거여” : 카페 <이매진>의 찰스

글_생글 상희

모든 인간이 평화롭게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몽상가라고 당신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난 몽상가가 아닙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담하게 되고
세계는 하나가 될 겁니다.

©이재각 군산, 하제, 2018

존 레논의 ‘이매진’ 가사는 카페 <이매진>을 운영하는 ‘찰스’의 마음 그대로다. 군산 땅에서 나고 자랐고 <노동자의 집>,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그는 카페를 열기 전까지 수백, 수천 명분의 인생을 살았다. “(시민단체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걸 해결해줘야 하는 거고. 그러다보니깐 이 사람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았다던 찰스. 지금은 그 무거움을 잠시 내려놓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군산과 연결되어 있는 커피 내리는 활동가, 찰스를 만났다.

청국장 투쟁에서 커피향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노동자의 집> 하는 선배가 “야 우리 문제가 있어서 노동부 가는데 놀러나 와라.” 갔더니 소장실 점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이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형들이 “청국장을 끓여 먹자. 노동부에 이 청국장 향을 싹 퍼트려버리자고.” 그래서 청국장이 싹 끓여지고 있는 무렵인데 나같이 생긴 놈들이 들이닥쳐서는 들어가지고 경찰서에 실어가 버렸어요. 제가 한 이틀 있다가 풀려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문화택시, 대우 자동차 운송업체 등 군산지역 5개 산업장의 노동문제를 모아서 연대회의를 만들어 투쟁을 하던 때였더라고요.

경찰서에 잡혀가고 보니까 성질나잖아요. 내가 볼 땐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정당한데. 이후에 농성이 시작이 됐는데. 평화바람 문정현 신부님이 공동대표야. 다같이 아침에 농성장에서 자고 천막에서 눈을 뜨면 첫 번째 문제 있는 사업장에서 집회를 해. 그다음에 2번 사업장에서 집회를 해. 그다음에 3번, 4번... 마지막에는 미군기지 정문앞으로 가서 집회를 해. 이 긴장감이 해소가 되질 않고 자고 일어나면 집회하고 집회하고 노동부 앞에서 끝나고. 99년도였는데 그때 신부님과 함께한 집회는 지금 집회보다 과격했어요.

신부님이 막 차를 끌고 미군기지 정문을 돌파를 해. 정문에 들어가면 미군 차가 오잖아요. 그럼 그걸 신부님 지팡이로 막 뿌서가지고 찌그러지게 해서 잡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노동운동, 미군기지 운동.. 2015년까지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 첫째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만큼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둘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지친 것도 있고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긴장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첫 마음에 비해 비겁해지는 것. 운동도 관성화되니까 도망치고 싶어지고. 그래서 접고 다른 길 좀 해볼까 생각했는데. 막상 20여 년 그렇게 살아왔더니 할 게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커피숍을 해볼까 했어요. 이전에 이미 커피를 취미로 단체 사무실에서 볶아서 내려 먹고 있었으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카페 이름을 <이매진>으로 지은 건 존 레논의 ‘이매진’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유명한 팝 이름에서 따왔구나 생각할테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철수가 하는 곳 답구나.. 할 것 같아서 <이매진>을 사용하게 되었죠.

‘운동’을 잠시 떠나있는 이유

너무 지쳤어요. 제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사무국장을 9년 했지만 전라북도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부장도 했어요. 우리땅 찾기 운동은 확연히 드러나는 미군기지 문제가 생겼을 때, 농토가 기지에서 나온 기름에 오염이 됐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특히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전주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 문제를 봤어요.

청소하는 위탁업체 분들, 휴게소 노동자들, 간병인들이



우리 조합원이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찾아와요. 그들을 꺼안아줘야 하잖아요. 그들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보통 농성을 하게 되잖아요. 사기업은 압박을 받아서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관이 개입되어 있으면 절차상의 문제다 뭐다 해서 농성이 길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집에 가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조합원들이 이렇게 농성장에 있는데 그들을 놔두고 집에 가면 불안해요. 그 사람들 내가 없으면.. 누가 와서 회유하고 협박해서 흐트러트리면 어쩌나. 우리만, 조합 간부들만 믿고 농성에 임해주고 있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들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그 사람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개입해서 해결해줘야 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아.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이 분들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한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아요.

우리 조합원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시골에 사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마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분한테만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 내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한 조합원이 연탄 지원을 받으면 그 연탄을 내가 몇 장 옮겨다주고 가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들도요. 50명이 있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삶의 문제가 있어요. 오래 함께 있다 보니까 그제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하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군기지에 대한 기억

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을 하기 전에 회원으로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미군기지 문제를 가까이 느꼈던 시작은.. 어릴 때 집이 미성동 아메리칸 타운 옆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미군을 세 명이나 임대를 줬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친했어요. 미군들이 급여를 타면 먹을걸 사다줬어요. 당시에 수입이 안 되던 캘리포니아 오렌지부터 막 새로운 음식들을 주는 거예요. 미군이 같이 살던 이모들, 당시에 양색시라고 불리던 이모들이랑 놀러도 같이 갔죠.

어느 날은 제가 중학교에 올라간다고 머리를 깎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집 앞에 나와서 허벅지를 만지면서 ‘총알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미군이 아버지한테 총을 쏘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 옥상에서 미군 둘이 깔깔 웃고 있었어요. 아낙네들이 논길을 지나가는데 미군들이 옥상에서 총을 겨누고 있더라요. 아버지가 뭐 하는 것이냐고 막 했더니 허벅지가 따끔하더라요. 나중에 경찰이 왔고 총알을 찾았죠. 미군이 총을 쏘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 기억이 저에게는 미군이 잘못된 일로서 최초로 각인이 되어 있죠.

또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 대학생이 미군에 맞아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당시에 미군에 의해 발생한 최초의 사고로서 동네에 방송국이 와서 인터뷰를 해갔죠. 이후로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잇고 살다가, 97년도에 미군기지가 우리한테 활주로 사용료를 내라고, 6배나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 관변단체까지 다 나와서 인상 반대한다고 집회를 하던 때였어요.

‘대한민국 땅인데 미군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임대료를 받지 못할 망정?’ 제가 문제의식을 그때 한번 더 느꼈죠. 그때 활주로 사용료 인상 반대 집회에서 미군기지 근처에서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매일같이 집회에 나오셨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했던 생각,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려고 주둔 했다’는 생각이 점차 깨어졌죠. 미군이 한국에 주둔시킨 이유가 사실 무엇일까? 점차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을 시키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간섭하려는 의도였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전 사무국장님이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죠.

9년간의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활동

사무국장을 하면서 크게 한 일은 없어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2002)이 일어나서 미군기지 운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정부가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기지를 나가라고 하거나, 미국에 책임을 지워서 얻어낸 게 없었어요. 제스처정도만 했을 뿐이죠. 시민모임에서 할 수 있었던 건 지역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미군의 문제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

그리고 2006-7년 정도에, 기지가 확장세였을 때예요. 처음에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한다고 우리 땅을 비싸게 사갈테니까 좋겠다’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은 한 평당 10만 원에 땅을 사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평당 4만 5천 원. 기지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강제로 공시지가를 내고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아라’ 했던 거죠. 주민들이 시민모임에 쫓아왔어요. ‘국가가 우리 땅을 4만 5천 원에 사 간다는 데 말도 안된다. 땅값 좀 더 받게 해달라’고 왔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토지공사 쫓아가고 해서 8만 원 정도로 되긴 했는데.. 저는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확 싸워줬으면 했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같을 수는 없었죠. 주민들이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될 때의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땅값이라도 제대로 받아, 했던 거죠.

지역 주민들은 패배의식이 있죠. 농번기가 아닌 이상은 미군기지 안에서 일을 해야 하니깐요. 자기 아들딸들이 기지 안에서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차 정비소를 하는 하운기씨가 주민대책위를 하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미군 내에서 직급 높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 뒤로 그 집에 차를 고치러 딱 안 오는 거예요. 시민모임에서 했던 일 또 하나는,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동안 미군 기름유출이 4번 정도 있었어요. 그 싸움으로 보상받고,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해냈고요. 그런데 미군기지 문제는 노사 문제처럼 최종 해결이라는 게 없어요. 치고 박고 싸우고 나중에 노사 약속하고 사진 찍고.. 그런 게 안돼요.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운동은 ‘활주로 사용료 반대’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과격적으로 바꿔낸 건 없어서 안타까웠죠. 그런 게 진짜 해야 할 운동인데 관이나 국방부가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잔 문제를 맡게 된 거죠. 국방부도 말하기를 ‘이제 북한이 비용이 없어서 전투기를 띄우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데요. 미군 철수에 타당성이 생겼는데도 떠나지 않아요. 동아시아 지역에 자기들의 패권을 만들기 위해서 주둔시키고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하제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지켜보다

미군기지 확장 초창기부터 신안이나 하제마을 등 이주하는 길 다 봤죠. 하제마을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살던 주민들도 있지만 바닷가 하나 보고 몸만 온 사람들이 많았죠. 당시 국가 땅에 집을 그냥 지어서 대대로 살다 보니 자기 땅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으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실제 자기 땅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문제가 심했어요. 국가에선 보상을 조금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다 집단 이주를 하게 된 거죠.

하제에서 주민들이 떠나게 된 건 미군기지 문제도 있지만 새만금 문제도 겹쳐있어요. 간척공사를 하면서 물이 막혔으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먹고 살 수 없게 돼서 떠나는 거죠. 이제는 어선이 아예 없어요. 다들 낚싯배를 해요. 갯벌이 존재해야 먹이사슬이 유지되고 물고기가 살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수온도 올라가니까 그동안의 어업방식을 포기한 거죠. 어민들 수입이 확 줄었죠. 만약 하제가 그대로 있었다면 호미 하나만 들고 갯벌에 나가면 하루 2~30만원 씩 조개를 캐왔을 텐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쫓겨난 거죠.

환경을 보전하는 게 경제적 논리로 봐도 차라리 더 이득이었을텐데 국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개발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싸워야 하지 않았나 싶은거죠. 이제는 외부 업자가 와서 투기를 해서 펜션을 짓고, 원주민은 다 쫓겨났죠. 물고기는 안잡히는데 누가 땅을 팔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나가고, 보상금 받고 나가고.. 먹고 살려고 자꾸 나갔죠. 20년 전에 보상금 받아 나가서 제일 잘 된 사람이 월급 받는 아파트 경비라고들 해요. 다들 보상받은 돈으로 슈퍼마켓이나 노래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망했다고 해요.

주민들이 기지 있는 매항리, 대추리 여러 싸움을 보고서는 ‘보상이라도 조금 더 받고 나가자’ 그게 주민들 마음이었죠. 국가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반대를 없애려고 관공서장이나 주민대표를 만나서 분위기를 만드니까요. 마음은 아프지만 ‘싸우지 않고 받을 수 있을만큼은 받아서 나가는 게 이익아니겠나’ 했던 그들 마음을 이해를 해야죠.

하제가 다 탄약고예요. 예전에 전투기에서 폭탄이 떨어졌고 불발된 상태인데 사이렌을 울려서 기지 사람들은 다 대피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7시간 후엔가 대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 탄약고가 터진다면 반경 2km정도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거예요. 군산은 단순 캠프가 아니라 미군 베이스거든요. 가장 화력이 세고 탄약이 많은 지역이에요. 90년대 이전까지는 군산공항에 핵무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은 조약에 의해 없어졌다고 하는데 열어보지 못했으니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탄약고를 이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국방부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쫓아내는 거죠. 사실 목적은 기지확장이고요.

찰스에게 군산은

바다예요. 바다. 97년도에 대우 자동차가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잘됐다, 부품 조립해서 자동차 팔면 경제가 돌아가겠다 했는데 정작 군산에서 자체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은 일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GM이 인수를 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다 나가고 망했죠. (한국GM 군산공장은 2018년 공식 폐쇄) 군산에서 먹고 살 길은 바다밖에 없었는데요.

멀리 보질 못하고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공장을 유치하면 군산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미군기지만 없었다면 이 바다가 참 예뻤을 텐데요. 관광과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럼 우리들 삶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요. 미군기지에서 전투기 소음이 땅이 흔들리게 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군산 떠나고 싶은 적도 많죠.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웃음)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잡지도 만들고 활동하는 거 보잖아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부럽기도 하고요.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버텨주니까 그나마 사회가 돌아가지 않나’ 하고요. 이제 이매진 카페가 5년 됐는데요. 운동했던 때보다 제 육신은 편해요. 그래도 계속 사회 문제가 눈에 밟히고, 그래요. 군대가 있어야만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생각하죠.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바위가 쪼개질 때까지 달걀로 쳐야하는거여.’ 그런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한다고요. 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믿고 있어요. 사실은.



©권영창



평택에서 군산까지, ‘가장 아픈 곳으로’ : 사진가 이재각

글 _ 생글 상희

이재각은 사진을 찍는다. 터를
빼앗긴 사람들 곁에, 혹은 흔적
앞에 카메라를 들고 선다. 그는
국가폭력에 할취어진 자리를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밀양의
뜯겨진 산 속 정령과 할매를,
군산미군기지 옆 무너진 빈집을..
그에게 사진은 기록일까, 싸움일까,
다음 싸움을 위해 역사를 쓰는
일일까, 평화를 위한 기원일까.
그 모든 것이거나 아직은 함부로
이름 붙일 수 없을 순간들을 그는
붙잡는다.

전쟁이 나서 다 버리고 떠난 것처럼...

이재각과 군산의 첫 인연은 2009년이였다. 친구들과
다큐 사진 동아리를 하던 그는 당시에는 미군기지
자체보다는 새만금에 초점을 두고 군산에 다녀갔다.
그리고 2018년, 군산미군기지저지 투쟁에 함께한
지난 2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그는
군산을 다시 찾았다. 10년 사이 군산은 너무 많이
변해있었다. 기지 확장 공사로 인해 근처 집들은 거의
다 무너져있었다. 남아있는 집들이나마 기록하려고
그는 매달 카메라를 들고 군산을 찾기 시작했다.

그가 군산 하제마을의 빈집에서 찍은 다홍빛 꽃신
사진을 보여줬다. “빈집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신발이
고대로 이렇게 있었어요.” 누가 안에 있는 줄 알고
계시느냐 물었지만 비워진 집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누군가 방금 떠난 것만 같은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완전한 폐허보다도 온기가 남은
빈티가 더욱 두려움을 불러왔다.

군산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전, 하제마을은 앞바다에서
잡히는 노란 조개 덕에 ‘하제 개는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집들은 뽁뽁했고 사람이
그득했다. 지금은 떠나지 못한 들고양이들만 오간다.
그는 하제의 빈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았다.
방금 화장을 마치고 일을 나갔을 것만 같은 화장대,
당장 밥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릇 쌓인 부엌..
주민들이 급히 나가야했기도 하지만, 이주 보상으로
받은 주공아파트가 너무 작아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세간살이를 다 두고 떠난 것이다.

주민들이 일궈온 생활을 작게 구겨 넣으며 사라질
때도, 모든 것이 뿌리 뽑힐 때도 팽나무는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그 존재 자체로 무언가 있었어요.”
600년을 살아낸 하제 팽나무를 사진에 담으려 갔을 때
그는 아마도 경이로움에 가까울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다. 포구의 ‘어촌 사랑방’도 그의 사진에 남았다.
그 옆에는 조개를 쌓아두고 일하는 집하장이 있었고,
마을 어른들은 사랑방에서 화투를 치고 일상을 나눴다.
그곳에서 주민들은 그에게 ‘새만금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졌는데, 지금은 새만금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갔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사랑방도, 조개 집하장도, 그곳을 채우던 사람의 기척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 노인들은 이제 어디에서
추억을 나눌까.

평택-밀양-성주-강정 그리고 군산까지

군산 하제마을뿐 아니라 성주, 밀양, 강정.. 거대한 폭력
앞에 무너져가는 공간을 담아온 그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데 내가 왜 가는지” 자신도 궁금하다고 했다.
살아온 이력 때문일 것이라 했다. 그 뿌리에는 아마
그가 겪은 2004-6년의 ‘여명의 황새울’이 있을 것이다.
평택 바로 옆 대학을 다니며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싸움을
함께한 그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분이 터지던”
대추리가 무너지던 그 날을 잊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 단편적으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결국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섰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 그 순간, 평택 들판의 노을이 조용히
타오른다.

이전에도 현장에서 맨몸으로 맞서는 틈틈이 사진을
찍어왔지만, ‘사진 작업자’로서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든 것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이었다. 늘 앞에서 함께
으쌔으쌔하다가 카메라 뒤에 서는 일은 처음에는
낯설었다. 그러나 사진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고민하며 일단 발을 떼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의
성주, 해군기지를 막기 위한 강정 투쟁, 군산 등에서 그
각각의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로 이어짐을 느꼈다.



침탈해서 쟁탈하기 위한 전쟁. 그것을 준비하는 데 쓰이는 사드와 미군 기지들, 한 마을을 앗아가고 미국에서 이식된 핵발전소 전기를 쓰겠다는 송전탑 건설의 의도. 그 무자비한 폭력 아래 일상이 사라진 주민들. 그가 보여준 눈빛들은 닳아있었다. “행정대집행 침탈 준비 속에 긴장감과 답답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이걸 침탈 다음 날의 새벽,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 할 밤을 길가에서 보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걸 하제마을에 혼자 서 있는 전기 끊긴 가로등이고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는 그 속에서 본 닳아있는 것들을 이어나갔다.

한반도의 미국 땅, 캘리포니아를 찾아서

최근 그가 있는 또 다른 장소는 ‘한반도 속 캘리포니아’다. 한반도에 있는 미군기지의 주소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되어있어 치외법권이다. 군산미군기지도 마찬가지. 그는 이렇게 미국 땅이지만 한반도에 버젓이 존재하는 ‘캘리포니아’들을 숨은그림 찾듯 발견해볼

생각이다. 군산, 용산 등 미군기지를 포함, 그 앞의 바다는 ‘캘리포니아 비치’라고 할 수 있다. 경주에도 ‘캘리포니아 비치’라는 워터파크가 있다. 전쟁이 남기고 간 현재 진행형의 흔적인 ‘한반도 속 캘리포니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는 민간인 학살지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도 함께하고 있다.

사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기록의 방식이 “사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사진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며 변화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그에게 ‘작업’이란 사진이란 형식을 빌려 “현장에서 느낀 내 목소리를 타인에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일이다. 그는 카메라란 태생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찍게 되지만, 찍힌 사진이라는 결과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담아내기에 ‘작업’에 고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사진집 <윤미네 집>을 예로 들었다. ‘딸 윤미가 태어나서 시집갈 때까지’를 찍은 것이지만,

사진을 보면 윤미를 보는 아버지의 감정들이 읽히기도 한다.

첫 작업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서 그는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을 찍었다. 밀양의 숲을, 바람을, 그 속의 사람들을 담았다. 그리고 “할매들이 홀라당 벗겨져 (진압 인력에) 끌려가는 그런 사진들 없이” 이제각의 방식으로 작업을 맺었다. 그는 책을 ‘할매’들에게 보여드릴 때 고생한 투쟁의 순간들이 담기지 않아 실망하시진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오히려 보신 분들은 그냥 “고생했다”는 말을 주셨다.

밀양 투쟁의 현장에서 그도 처음에는 자극적 사진들을 찍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뉴스에서 그런 모습은 많이 노출되는데, 나까지 생산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 이후에는 확 눈에 띄는 진압 사진 등은 찍지 않았고, 사진 자체를 덜 담았다. 꼭 그런 투쟁의 단면 없이도 “이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작업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담겼다.

그는 밀양 작업 때부터 사진의 쓸모, 사진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했다. 사람들이 현장을 기사만이 아닌 사진 작업을 통해서도 접하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고,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겠지만 그는 사실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고 했다. 사진에겐 별로 힘이 없고 자칫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사진이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작업’이 당장 선택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르익고 언어를 갖추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고민이 많지만 “자신과 같은 작업자,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 믿는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안, 오래도록 그가 혼자 사진 찍는 모습을 떠올렸다. 하제의 꺼진 가로등을 보며

허탈해진 뒷모습, 잔뜩 긴장한 채 빈집의 꽃신을 찍고 있는 모습, 송전탑이 세워질 자리 풀 속에서 흰 나비를 발견한 순간... 그의 스승 중 한 분인 이시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손톱 밑 찔리면 온 신경이 집중되듯 사람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다. 우리 사회의 중심도 청와대가 아니라 ‘가장 아픈 곳’이다.” 아마도 그는 그 말을 따라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가장 희미한 것에게로 향하는 사랑, 가장 아픈 곳에서 치부를 찍지만 그것의 노골적 전시를 두려워하는 조심스러움. 그 태도가 곧 그의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뷰 장소는? 안동 초원사진관]



이재각은 안동에서 <초원사진관>을 꾸려나가고 있다. 2020년 5월 문을 열었다. 주 3일은 손님들의 추억을 찍고, 하루는 사진 관련 도서관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영화도 상영하는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이다. 사진관 이름은 ‘나중에 커서 사진관을 하게 되면 이름을 초원으로..’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지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초원사진관과 같다.



92

이재각의 <안녕,하제> 사진전



93





평화바람,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

활동가 오두독 오이 중서

글_ 휴식 화연

2020년 여름, ‘군산지역연대 미디어프로젝트-난리법석’ 워크숍을 통해 평화바람을 만났다. 1박 2일 동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 군산이 당면한 문제들, 사라진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평화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다. 2003년부터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들이 궁금해졌다.



©권영창

#유랑에서 군산으로 - 희망을 보았다

평화바람은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평택 미군기지 이슈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국민의 다수가 이라크 파병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시민적 부끄러움, 뭐라도 하겠다는 “단순한 목적”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한다.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국의 어느 곳이든 거리에서 유랑을 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하며 그들은 1년의 시간을 보냈다.

1년의 유랑 후, 평화바람은 평택 대추리 마을 주민들과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투쟁 2년 동안 함께 했다. 결국 대추리의 보금자리가 국가권력과 미군에게 수용되었지만 그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군산 옥서면, 미군기지를 감시하기 좋은 자리에 위치한 단층 단독주택은 평화바람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자 활동의 베이스캠프이다.

창단멤버이며 현재 강정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활동가 오두독은 유랑의 생활을 접은 그들의 선택에 대해 “유랑 대신 정주적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대추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투쟁하며 확인한 것은 지역사회의 치열한 평화에 대한 고민이었다. 전국을 유랑한 1년의 시간, 대추리에서 2년의 투쟁은 그들은 연대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까지 평화바람이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들의 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평화바람은 현장에서의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랑의 시간 동안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현장으로 이어진다.

#현장의 의미 - 함께 하는 곳

평화바람은 현장에서의 깨달음에 대해 말한다. 활동가 오이는 평택 대추리 투쟁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에게 대추리 투쟁은 평화라는 권리가 사람의 생존권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였다. 공권력에 의해, 군사력과 국가의 안보에 의존한 평화, 전쟁과 폭력이 공기처럼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한국에서 그는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한다.

최근에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렸다.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주도하는 포럼이다. 국가 그리고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평화”가 군사력에 의존한다면, 평화바람은 “우리가 참여하는 평화”를 말한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 평화를 의논함에 강정, 평택, 성주, 군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평화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초국가적 대화를 상상 해본다.

연대와 투쟁의 과정이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에 대항한 투쟁에서 어떤 이들은 다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폭력의 체현화도 이루어진다. 활동가 오이에게 평화는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화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평화는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배움은 현장에서 생성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활동가 구중서는 자본주의적 성과 중심의 논리에 대항하여 운동의 의미를 “매 순간순간이 끊임없는 승리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 활동의 과정에서 당면하는 기지확장, 미군환경문제, 사드반입, 해군기지건설처럼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들에 있다 해서 운동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소중한 공동체”가 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매 순간의 승리”라고 말한다.

현장은 군산을 넘는다. 평택 대추리, 매항리, 용산 남일당, 제주 강정마을도 현장이다. 또한 국가 역사적 관계를 넘어 오키나와, 필리핀, 괌, 하와이 같이 군사기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들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 나가고 있다. 평화바람의 현장,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초국가적이다. 나의 문제, 그리고 너의 문제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우리들의 문제이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다름을 넘어 알아가는 과정, 연대성에 기초한 평화의 의미에 대해 배운다.



#경계가족_활동을 중심으로

평화바람 사람들은 스스로를 경계가족이라고 부른다. 경계가족의 의미는 혈연-신앙-이념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가족. ‘피는 물 보다 진하다’라는 이성애적 혈연 가족주의가 ‘정상’으로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를 경계가족이라고 부르는 평화바람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정상’의 테두리 밖에서 서로가 가족이 되는 과정은 활동이 중심이다. 같이 “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식구”라고 지칭하는 평화바람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

평화바람 식구들은 3가지 원칙을 고집한다. “아침밥 같이 먹기,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활동비 공동분배.” 최근에는 노후와 건강을 주제로 돌봄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다짐,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을 뜻하는지 논해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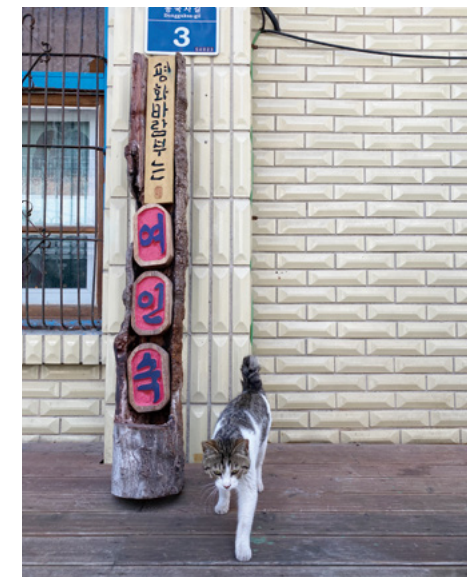
활동가 구중서는 성숙한 공동체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신뢰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자라온 환경, 습관, 사소한 것들의 차이를 합의를 만들어 가고 젠더 문제나 대표성에 관한 고민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가족은 만들어진다.

하지만 역시나 평화바람 사람들을 “식구”로 만드는 실천은 활동이 주인이다. 평화활동의 일상에서는 기지를 감시하고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나가고 평화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텃밭도 가꾸고 평화바람의 반려견 글라라와 봉봉이를 산책시키는 일도 있다. 활동을 중심으로 가족을 실천하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인숙_평화를 소통하는 문화공간

2019년 군산 월명동에 평화를 이야기하는 문화공간, 평화바람부는여인숙이 문을 열었다. 군산미군기지 주변과 사라지는 마을에 관해 사진 작업을 해온 이재각 작가의 사진들과 마을에서 주워온 물체들을 중심으로 한 <안녕, 하제> 전시를 시작으로, <군산에서 군산으로>, <개복동 2002. 기억>, <평화가 무엇이나> 등 여인숙을 찾아와 주는 사람들과 평화를 소통하는 공간이다. 난리법석과 같은 연대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기지가 있는 현장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평화바람부는여인숙 팟캐스트 - 문전박대의 대화 공간이다. 11월 둘째 주까지는 <장미에 네 번째 도예전 -사소한 위로>가 전시 중이다. 소식에 의하면 여인숙을 평화박물관으로 탈바꿈하려는 고민도 있다는!



생태



새만금 갯벌과 담수화 계획의 허상

글 _ 오동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

새만금은 어떤 곳인가.
방조제를 지날 땐 의례 차를 세워두고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블로그에 새만금 방문기를 써 내려가기도 한다.
정작 본인은 새만금 바깥쪽을 보고 있으면서 말이다.
과연 우리는 새만금을 상세히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
최소한 새만금의 하나라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새만금에 대한 우리의 개발 만능주의가
1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도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반환경적인지 말하고자 함이다.

그에 앞서 20년 전 새만금 바다를 소환했다.
2000년 만경강 하구의 드넓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던
때가 생각이 난다.

한일공동 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모니터링을 위해
바다 위에 나갔던 우리는 만경강 하구의 너른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갑자기 배의 속도가 줄더니 선장님이
다급하지만, 웃음기 잃지 않은 말투로 연신 엔진에 힘을
더해 배를 앞뒤로 움직였다.

그렇다. 간조가 다가와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주변은
온통 바다였지만 갯등에 배가 걸리고 말았다. 배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 바닥이 어슴푸레
보이는 물속에 퐁당 퐁당 빠지기 시작했다. 배를 밀기
위해서다. 하지만 2t 이상 되는 배를 몇몇 사람들 힘으로
민다는 건 어렵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배를 밀며 느꼈던 발밑에 전해오는

느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7월 따뜻한 바닷물은
분명 개운한 바다향을 가지고 있었고, 무릎까지 차있던
상황은 물속에 몸을 던지고 싶은 기분이었다.
선장님은 이미 배를 포기하고 더 작은 다른 배를 부르기
시작했다. 새만금이란 단어가 어쩔 생소하기까지 했던
그 시절 우리는 다음 물이 차오를 때까지 12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배를 덩그러니 세워놓고 작은 선외기를
타고 빠져나왔다. 거대한 바다는 커다란 고래가
물밖에 슬그머니 드러내듯 어느 순간 넓은 갯등을
금세 만들어 냈다. 일부러 걸어 놓은 양 배는 갯등에
얹아있었다. 새만금 방조제가 다 연결이 되지 않고
1.2km 남아있던 시절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했던
한일 공동조사단들에겐 즐겁고 재미난 추억의 한

장면이었지만, 새만금 뱃사람인 선장님에겐 그저 한낱
대단치도 않은 일상의 이야기였다.
20년 전 그 바다는 내가 스스로 몸을 던져 들어가고
싶었고 발가락을 움직이면 서해비단고둥과 작은 조개
치패들이 걸릴 정도로 생명이 그득그득 차올라 빠져나올
곳을 찾는 죽순처럼 어렵지 않게 그들을 눈과 손과
발바닥의 모든 오감으로 만났다.
20년이 지난 2020년 8월 여전히 선상조사를 한다.
하지만 한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 바다에
뛰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채취한 뱃을 사진찍기
위에 채니기에서 빼내 플라스틱 쟁반에 놓는 동안 손에
문울까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이다.
20년 동안 정부는 새만금에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채니기는 물 밑의 진흙, 모래 등과 같은 침전물을 채집하는 기구

담수화의 허상 그리고 염분성총화

현재 새만금 수질은 6급수 정도고 이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여전히 정부는 새만금 물속이 폭폭 썩든 말든, 수질 개선의 수치와 육지의 유기물 유입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또 제시하고만 있다.
 새만금의 생명이야기는 어디에 갔는가? 우리는 그들의 말에 무엇을 던져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새만금에 생명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은 온데간데없고, 수치상의 아쉬움만 토로하며, 좀 더 긴 기다림으로 봐주기를 바라고 있다.

2016년 나는 16년 동안 찾아오고 있는 사토 신이치 박사와 함께 새만금 저서생물 조사를 돕고 있었다. 그에게 어차피 선상조사를 하는 동안 좀 더 수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의 용존산소 측정 장비를 빌릴 수가 있었다. 그동안 조류조사를 맡아왔기에 선상조사는 해상의 조류를 관찰하는 시기였고 그의 손과 발을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당시까지 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원들은 그의 조사를 도왔지만, 내가 수심별 조사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동안 그는 나를 돕고 있었다. 1m 단위로 수심별 용존산소와 염도와 온도를 체크했고, 10개 이상의 지점을 모두 조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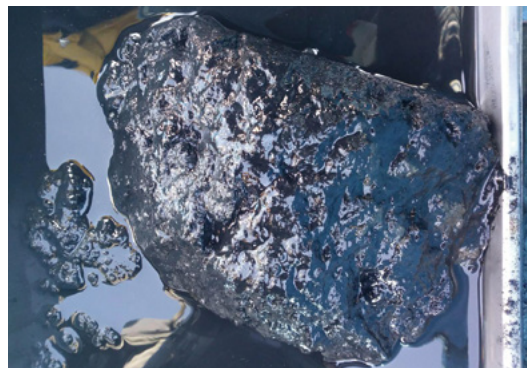
정말 이상한 점이 여러지점에서 나왔다. 수심이 깊은 곳이면 약 2~3m 지점에서 갑자기 용존산소가 떨어지고 염분이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미 상식적으로도 염분은 당연히 저층 쪽이 높다는 것과 용존산소가 어느 정도는 낮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닌 특정 깊이에서 갑자기 변칙 선을 가지고 있는 듯 용존산소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표층과 저층만을 조사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새만금은 그렇게 3m 아래 저층의 물과 바닥이 산소가 없이 썩어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총화는 한여름철 일시적인 어패류가 죽는 현상으로 뉴스 일부분을 장식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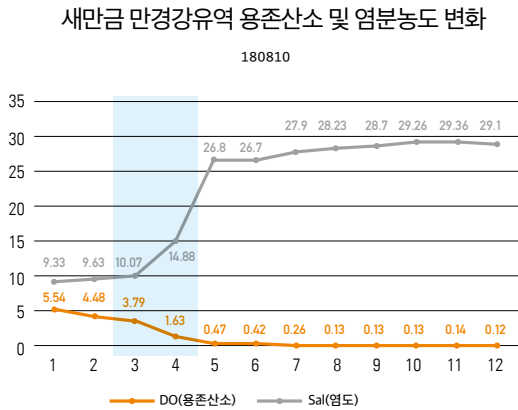
새만금은 아니다.

염분이 성총의 기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성총은 아주 단단히 형성되어 저층과 표층이 거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 해석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머리에 망치를 맞은 기분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기에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는 상식이 이런 기작의 과정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그간 넘어갔던 것이었다.

새만금은 일반적인 내륙의 저수지나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성총과는 전혀 다른 기작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륙에서 아무리 유기물을 단속한다 한들 호수 자체에 산소가 없어지는 혐기화로 썩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2018년 새만금 만경강 수역에서 체니기를 사용해 채취한 빨의 모습, 냄새와 색깔 모두 시궁창에서 꺼낸 것과 차이가 없는 모습, 2020년에도 여전히 같은 빨이 올라오고 있다.



가로축(수심m), 세로축(농도) : 수심 3~4m 지점에서 용존산소와 염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수심대가 새만금 전 수역에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통 수질이라고 하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수질 문제에 있어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

연안의 인공방조제로 인한 호수의 성총 현상으로 인한 이런 기작을 교육현장에서 교육하지도 않았고, 여름철 일시적인 현상으로 뭇개 표현하고 있었을 뿐 수온성총과 연안에서 이뤄지는 염분성총의 이론적 구분을 해놓지도 않을뿐더러 기작에 대한 설명도 없는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염분의 기작에 의한 성총을 염분성총화라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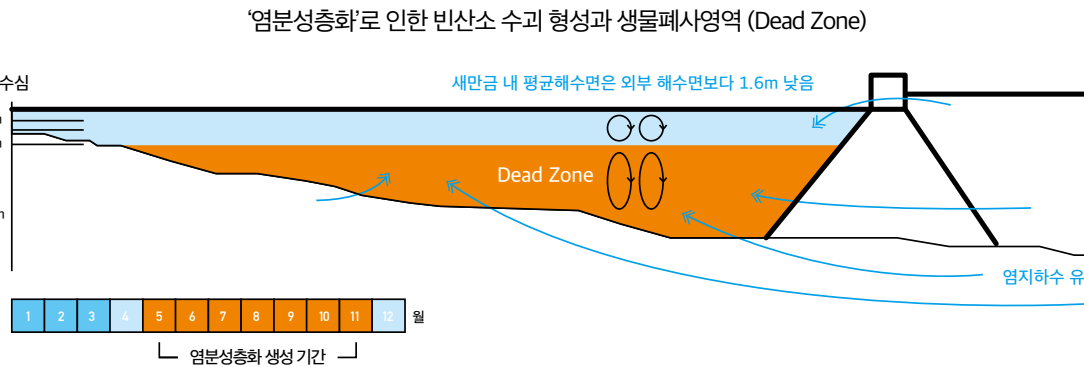
그동안 왜 새만금 수질이 문제가 생겼는지... 저층에 왜 죽은 빨만 계속 나오는지, 모든 게 해석이 되었다.

새만금은 염분을 100% 제거할 수 없다면 저층의

염분성총을 막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용존산소 소모에 의한 빈 산소 상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염분은 현재 수문으로도 공급이 되지만 해수를 들이지 않더라도 30km의 방대하고 수심이 깊은 상태의 방조제 자체로 그리고 염지하수로 염은 일부분 계속하여 공급된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대규모 해안 개발사업은 생물이 살 수 있는 담수화가 공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런 기작의 현상을 30여 년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몇몇 학자들의 논문에서나 인용되어 현실반영이 없었던 우리의 현실이 결국 새만금을 이런 꼴로 만들고 말았다.
 2016년 정부 기관도 보도자료 발표 후 비로소 용존산소를 수심별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새만금 생물 폐사 매커니즘
 5월경부터 수온이 상승함과 동시에 염분의 영향을 받는 무거운 저층수와 민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벼운 표층부와 뚜렷한 성총형성
 >>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용존산소 고갈
 >> 표층부와외의 단단한 성총화로 인해 표층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빈산소 수괴의 용존산소량은 급격히 떨어져 무산소층에 가까운 수괴까지 형성 (5mg/l 이하일 경우 생물생존 희박)
 >> 대량폐사 (겨울철 성총화가 깨진 상태에서 성장했던 기존 호내 저서생물과 해수유입시 들어온 생물)
 >> 11월경까지 생물폐사 영역 존재

새만금 염분성총화 기작

염분 유입 경로
 - 방조제 수문
 - 방조제 : 수심이 깊은 마지막 공사구간인 4공구가 제일 클 것으로 예상
 - 염지하수 : 바다의 평균수심이 1.6m 높이 외부해수 수압이 항상 높은 상태이며 광범위한 넓이의 모래질 바닥으로 오는 염지하수

우리는 염분성충화를 새만금 수질 문제의 중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염분성충화로 인한 저층의 빈산소 수괴 형성을 공학적으로 막지 못한다. 단지 염분이 적으면 성층대가 하강하고 해수가 많으면 성층대가 올라갈 뿐이었다. 조사결과 새만금은 일 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약 7개월가량, 3m 이상 깊어지는 수심대가 데드존(Dead zone)이라는 죽음의 장소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환경부조차 이런 사실을 드러내 말하고 있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수면에 그려진
선 전용 생태 용지

정부는 갯벌 한 평 남기지 않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만들어 놓았다. 수라갯벌과 같은 양질의 갯벌을 지정해야 진정한 생태용지가 되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체용지 하나 마련하지 않는 새만금 사업이 어떤 이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새만금에 와 본 사람은 많다. 그리고 새만금이란 곳을 많이 알고 있다. 그렇다고 새만금 속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얼마 전만 해도 허울뿐인 생태용지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생태용지에 대한 실상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저어새 서식지 보존 요구 대책에 대한 공문을 보내면, 환경부 관련 직원은 약방에 감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새만금은 이미 생태용지가 지정되어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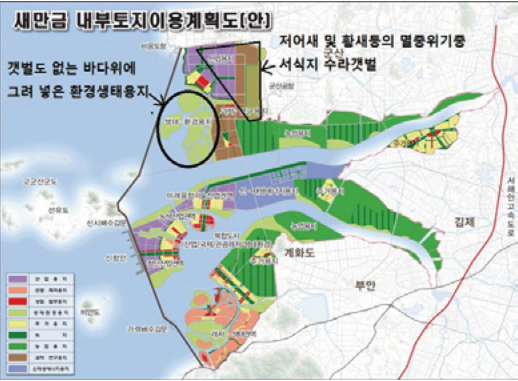
그렇다. 새만금에 그려진 생태용지도 넓다. 하지만 그곳이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관련 직원이 말을 못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곤 들판이 있지 않느냐 말을 한다.

정부가 만경강 유역에 그려 넣은 생태용지는 물 위에 그려 넣은 상상의 지역이다. 생태용지는 가토제를 쌓아서 만들어 내는 인공매립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멀쩡하게 멸종위기종이 다수 사는 곳은 모조리 개발하고, 바다 위에 준설토를 넣어서 생태용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라가 돈이 많은 것인지 지랄이 풍년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현재 새만금 생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눈높이다. 수라갯벌과 같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곳을 생태용지로 지정하면 될 일이다.

지금과 같은 생태용지는 만들지 않는게 생태적이다. 만들려면 어딘가 또 파헤쳐 준설돼야 한다. 수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죽벌이 쌓이는 곳을 만드는 것이다.



기존 갯벌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물 위에 그려놓은 생태 환경용지

갯벌 없는 해수유통의 정치적 함의,
평균 해수면 -1.5m 고수하는 이유

얼마 전 새만금 수질 용역을 맡았던 연구소의 결과가 나왔는데, 수질 문제에 있어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당연한 결과이며 반겨야 하지만, 한가지 그들의 연구결과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 바로 -1.5m를 유지해야 해수유통이 더 활발하다는 분위기의 결과까지 함께 나왔다. 어떻게 -1.5m를 유지해야 해수유통이 더 잘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20여 년간 수많은 사람이 새만금 갯벌에 대한 복원을 이야기했다. 2003년 3보 1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과 장승을

-자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2003년 12월~2013년 11월 새만금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종 (관찰 최고치)
December 2003 ~ November 2013 Maxmum counts, Endangered Species of Saemangeum

국명 KoreaName	학명 ScientificName	2003.12~2005	2006~2007	2008~2009	2010~2011	2012~2013.11	멸종등급
개리	Anser cygnoides		1				Ⅱ급
큰기러기	Anser fabalis	3,256	3,162	1,789	4,550	3,284	Ⅱ급
흰이마기러기	Anser erythropus		1		Ⅱ급		
흑기러기	Branta bernicla	1					Ⅱ급
흑고니	Cygnus olor					1	Ⅰ급
큰고니	Cygnus cygnus	28	92	159	106	457	Ⅱ급
황새	Ciconia boyciana1		1	1	1		Ⅰ급
노랑부리저어새	Platalea leucorodia	59	19	101	86	54	Ⅱ급
저어새	Platalea minor	50	16	79	110	90	Ⅰ급
큰덤불해오라기	Ixobrychus eurhythmus					1	Ⅱ급
노랑부리백로	Egretta europhotes	76		1	1	1	Ⅰ급
새호리기	Falco subbuteo	5	5	5	4	2	Ⅱ급
매	Falco peregrinus	3	6	2	2	3	Ⅰ급
물수리	Pandion haliaetus		2	4	1	5	Ⅱ급
벌매	Pernis ptilorhynchus					3	Ⅱ급
솔개	Milvus migrans	1					Ⅱ급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2	2	5	3	12	Ⅰ급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1	1		2	Ⅰ급
독수리	Aegypius monachus		1				Ⅱ급
잣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3	5	3	3	2	Ⅱ급
알락개구리매	Circus melanoleucos		1				Ⅱ급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1				Ⅱ급
조롱이	Accipiter gularis	1			1		Ⅱ급
새매	Accipiter nisus		2	1	1	2	Ⅱ급
참매	Accipiter gentilis			1	1		Ⅱ급
큰말뼉가리	Buteo hemilasius			1	1		Ⅱ급
항라머리검독수리	Aquila clanga	11		1	8		Ⅱ급
검독수리	Aquila chrysaetos					1	Ⅰ급
뚝부기	Gallixrexcinerea	1					Ⅱ급
재두루미	Grus vipio					12	Ⅱ급
흑두루미	Grus monacga	2	2	2	6	87	Ⅱ급
두루미	Grus japonensis	3				4	Ⅰ급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ostralegus	302	259	480	700	411	Ⅱ급
흰목물떼새	Charadriusplacidus		1			3	Ⅱ급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1,715	473	421	122	328	Ⅱ급
청다리도요사촌	Tringa guttifer	1	3	3	3	4	Ⅰ급
넓적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1	3			1	Ⅰ급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588	169	79	70	27	Ⅱ급
수리부엉이	Bubo bubo			1	1	4	Ⅱ급
검은머리족새	Emberiza aureola					1	Ⅱ급
종수		22	23	22	22	28	
개체수		6,110	4,227	3,140	5,781	4,803	

새만금지역에서 관찰된 멸종위기종, 기존 갯벌을 보존 용지로 한 곳도 지정하지 않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 이상할 따름이다.

세워 새만금의 아픔을 달래고자 했던 이들, 지금도 전라북도에서는 수많은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해수유통을 말하고 있는 동안 개발 당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1.5m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개발 강도와 차이가 없다. 이는 갯벌 없는 해수유통을 하겠다는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뿐이며. 우리 또한, 해수유통이면 되지 그 정도는 양보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해수유통의 유통량에 반드시 결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이는 기존 고질적인 수질 문제를 국민의 뜻을 들어주는 듯한 모양새로 수질 문제의 면죄부를 받고, 매립계획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정치권의 입김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어찌 세상은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전과 다르지 않은지. 고질적인 수질 문제는 염분성충화로 인해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산하기관도 성충화로 인한 내부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검증했을 것이다. 이미 내륙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에 대하여는 90% 이상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 이상 돈을 쏟아부어도 보이는 성과가 적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기관의 해수유통 필요성과 외해보다 -1.5m를 낮게 관리해야 한다는 결과는 상충한다.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입장을 섞어 넣은 눈칫밥 조율로 보여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나는 2004년 물막이 이후 2011년 방수제 공사를 위해 내측 수위를 -1.5m를 맞추기 위한 해수면 하강 시작년도 까지 물결선 변화를 계속 보아 왔다. 연구소가 -1.5m를 유지해야 해수유통이 잘 된다는 다소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출구전략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세상은 20년 전과 다를 게 없다는 걸 느꼈다.

연구 기관에 외부 간섭이 없었더라면 '해수유통의 필요함'과 동시에 온전한 수문 개방을 통해 해수면 변동의

결과를 보며 내부 보강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썼을 것이다.

2000년대 민관합동 공동조사보고서를 정부 기관 임명자가 임의로 개발 강행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거나 20년이 지난 2020년 이러한 연구기관의 결과는 다르기도 하지만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해수유통이란 의견을 내보인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대로 해수유통이란 것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 왜 -1.5m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해수유통량을 늘릴 수 있는지 따지고 물어야 한다.

그들은 20여 년간 새만금 개발의 당위성을 나랏돈으로 선전했다. 2011년 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부 매립토를 조달할까를 가지고 고민했으며, 이후 방수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립의 당위성을 꾸준히 어필하고 있다. 하지만 20여 년간 정부가 아무리 선전을 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한들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말해주었다.

물의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COD 기준 등으로만 말할 수 없다. 용존산소가 있는 살아있는 해역이어야만 한다. 바다가 죽어있는데 수질이 3급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대로 바다는 언제나 영양염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영양염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도시하천 관리책을 연안 습지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는 오히려 적절한 유기물을 바라고 있다. 도시하천과 연안 습지의 잘못된 관리는 오히려 바다를 굶기고 있다.

방조제는 바깥쪽, 방수제는 내부 개발을 위한 제방

**방수제 안정을 위한
평균 해수면 -1.5m는 맞는 말인가.**

새만금 내의 해수면 높이를 외해보다 -1.5m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 중 방수제 안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2004년 물막이 이후 2011년까지 -1.5m를 맞추기 위한 해수면 하강을 시작한 시기까지 해안의 물결선 변화를 계속 관찰해 왔다. 지금 연구소가 -1.5m를 유지해야 해수유통이 잘 된다는 다소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까지 출구전략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수문을 다 열어 관리하던 시기에도 새만금 내의 해수면 변화는 대략 0.5m밖에 되지 않았으며 절대 1m를 넘지 않았다. 이것은 수년 동안 관찰한 결과이다.

관찰결과와 수문학의 예상치 중 어떤 것이 정확할까. 미안하지만 정부는 이미 7년여 동안 수문을 열어놓았었다. 연구기관의 결과처럼 -1.5m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해수유통 시간에 대한 상당한 시간적 제한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수문을 자유 개방 후 개선 방향을 찾을 생각은 없는 건가?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으로 외해와 같은 정상 수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방수제에 치명적인 문제를 주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200년 빈도의 수해 대책으로 만들었다는 방조제가 20년 알도 못 보는 계획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될까. 정말 그렇다면 새만금 개발 계획자들을 문책해야 맞다. 아직 해수 담수를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방수제에 문제가 갈 거라면 처음부터 해수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부실 설계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다.

정말 정부가 그렇게 걱정스럽다면 방수제를 일부 구간이라도 높여 보강하면 되는 것을 방수제 때문에 죽어가는 새만금을 온전히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더욱이 정부는 부안 쪽 방조제 도로에서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를 높인 일이 얼마 전 일이다. 연안 습지를 막는 일은 염분성충화라는 성충으로 인해

공학적으로 생물이 살아있는 담수화를 만들 수가 없다.

건조한 청사진만 난무한 개발지에 생명을 더할 온전한 새만금 복원계획은 없는 것일까?

지금 기후변화의 대책은 CO₂를 줄이는 거와 맞추어 갯벌과 같은 습지 복원과 보존이 인공 사막화를 막는 길임을 명시해야 한다.

공유재의 파괴와 경제적 희생

우리에게 공유재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새만금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더 행복해지고 더 윤택해졌을까. 갯벌과 같은 공유재가 사라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행복감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공유재는 산과 바다, 강과 갯벌 그리고 호수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공유재가 많은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다.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지 않아도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공유재를 자신의 삶터로 일터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로 막힌 금강하구의 하구둑이 열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강의 젖줄을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대규모 공장 단지를 만들어 놓는 효과를 낼 것이다. 공유재는 수치상의 노동 인력의 취업지수와 같이 자료화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 풍요와 심리적 유희를 함께 안겨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은 다르다. 나라가 공유재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기업들이 공유재를 파괴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낳는다.

젊은 사람이야 자신들의 재능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일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이

자신의 직장이 되기도 하고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장소가 되기도 한다. 나같은 경우는 새를 보기 위해 다니는 갯벌이 놀이터가 되기도 한다.

IMF가 한창이던 90년대 후반 만경강 하구와 동진강 하구에서 바다를 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고 지나갔다. 도시에 나갔던 자식이 직장을 잃고 돌아올 곳이 있었다. IMF라고 생합이 없어지지 않았고, 동족이 자취를 감추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돌아오는 실뽕장어나 가을 전어가 사라지지 않았다.

IMF를 견디게 해준 것은 금모으기 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땅과 바다 강을 기대어 사는 우리 사회의 1차산업 기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과 더불어 수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누가 뭐래도 중요하다. 것처럼 공유재인 갯벌은 우리에게 수많은 경제적 도움을 주었고, 아이들과 같이 가족과 함께 유희를 즐기는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공기업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역민들의 공유재를 갇아먹고 있지 않은가...

지금 새만금의 경제적 가치는 한해 적게는 5000억에서 1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나는 선외기 한 척이 당시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가 있었는지 알고 있다.

당시 배를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것보다 못 버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였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갯벌 바닥을 긁어 조개가 잡히지 말라고 해도 잡히고, 그물에 고기가 걸리지

말라고 해도 잡히는 곳이 세상천지 어디 있는가. 그들은 어떤 조개와 어떤 고기가 돈이 되는지를 구별할 뿐이었다.

이미 군산, 김제, 부안 지역의 수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업과 가공업, 그리고 중간상인 및 지역 상권까지 관련 산업이 붕괴했다.

이미 적게는 10여 년간 10조가량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기업들이 경제 인프라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공기업들은 몸집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 그것이다. 몸집을 줄일 공기업을 찾아 더 나은 투자를 할 곳에 재분배 해야 한다. 언제까지 세금을 늘릴 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90년대까지 갯벌을 막는 것이 국민의 먹을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공유재인 자연을 파괴하며 진행하는 개발정책은 사라져야 한다.

여기저기 전국의 강과 갯벌이 막혀 숨을 못쉬고 있는 지금 보령호, 화성호, 새만금, 낙동강하구 금강하구 등 강과 바다를 막은 제방의 수문을 열어 수산업의 부흥을 도와야 한다.

새만금 사업으로 사라진 조개마을 ‘하제’

군산에는 평택 대추리와 같이 쫓겨난 동네가 있다. 바로 '하제'라는 곳이다.

1920년대 일본군 비행장으로 시작해 6.25를 거치며 미군이 주둔하고 지금껏 미군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의 하제는 원래 상제, 중제, 하제로 나뉘져 있던 곳으로 일제 강점기 상제와 중제 일부는 일본군 비행장으로 편입되었고, 다시 1960년대는 지금의 중제가 대부분 다시 편입되었으며, 2000년대는 국방부가 하제마을 사람들을 탄약고 안전거리를 이유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대부분 이주가 되었지만 줄기차게 두 집이 남아있다. 남은 두 집은 하제의 희망이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하제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조개껍질로 이뤄진 산이 있었다. 바로 노랑조개를 잡아 살을 내어 일본에 수출하였기 때문이다. 노랑조개 살은 아주 맛이 좋아 누구나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마을은 조개껍질로 한곳 한곳 메워가며 마을 자리와 선착장을 만들어갔다. 심지어 인근 마을 길도 남아도는 조개껍질을 소비하기 위해 길에 깔았다. 나는 어릴 적 조개껍질이 깔린 길을 자전거로 뽕개고 가는 것을 즐겼다. 바사삭 하는 소리와 함께 동족과 노랑조개 껍질은 산산이 부서져 연탄재가 깔린 길 위에 하얀 소금과 같은 색감을 만들어 냈다. 새만금은 1990년대 말까지 국내 생합 생산의 90%를 생산했고, 하제는 이중 가장 많은 패류를 생산했던 곳이다.

국방부의 탄약고 400m 안전거리 유지는 핑계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텅 빈 새만금호의 썩은 바닥은 그들 스스로가 하제를 떠나도록 했다.

과거 만경강 동진강 지역에선 활동했던 새만금 어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어장을 관리했다.

작은 조개는 잡지 않았다. 작은 것을 잡았다고 쇠고랑을 차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스스로 큰 것들을 잡았고, 남획을 조절했다. 그때까지 정부가 갯벌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수천 년을 새만금에서 살고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방식으로 관리했던 바다와 갯벌은 이제 황무지와 썩은 빨مان이 올라오는 곳이 되었다.

하제는 최치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며, 600년 팽나무는 하제마을의 상징으로 모든 이에게 마을의 안녕을 빌어왔다.

또한, 하제 화산의 형이상학적 기암 석들은 좋은 지질공원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바로 앞 수라갯벌은 많은 사람에게 갯벌의 지역문화를 만들 수 있는 군산의 마지막 남은 원형 갯벌이다.

하제는 되살아나야 한다.

새만금이란 개발 청사진으로 사라진 하제, 새만금이 살아있다면 과연 하제마을 사람들은 떠났을까? 새만금에 갯벌이 있는 해수유통은 그나마 사라진 새만금에 다시 희망일 것이며, 하제도 되살아 날 것이다.



화성호 저층뽕의 모습, 새만금과 같이 이곳 또한 염분성중화로 인해 뽕이 썩어 있다. (2020)



2013년 하제의 모습, 가무락을 잡은 모습



하제마을을 일구었던 조개껍데기



양반, 군산에서 평화를 묻다

글 김예림 (제천간디학교 선생) (으)

‘학교 밖에도 배움이 있다.’ 제천간디학교 교육과정 중 하나인 움직이는 학교를 설명할 때 하는 말이다. 매년 6월, 학년별로 학교 밖 배움을 찾아 약 3주간 떠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도, 교사에게도 무척 설레는 일이자 많은 준비가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다. 움직이는 학교를 기획하는 4학년(제천간디 중고통합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말한다.)에게는 그 무게가 더했을 것이다.

시작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럽던 3월이었다. 줌(ZOOM) 화상통화로 모인 아이들이 ‘가치 세우기’를 큰 주제 삼아 각자 탐구하고 싶은 이슈와 단체를 발표했다. 크게 봉사와 마을(지역 공동체), 사회참여가 있었는데, 다수의 아이들이 사회참여팀이 발표한 군산 새만금-미군기지 이슈에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움직이는 학교로 간 제주도 강정에서의 기억이 강렬했고, 기후위기에 관심이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냥 바다에 가고 싶어서” 군산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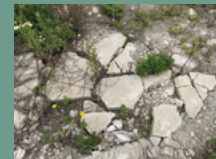
우연에 우연이 더해진 선택지였다. <잡식가족의 딜레마>로 학교 내에서 유명한 황윤 감독이 마침 군산에서 새만금과 미군기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제천간디학교 학부모이자 친한 감독에게 전하면서 2020년 4학년 움직이는 학교 장소가 정해진 것이었다.

우선 군산에 대해 공부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책 『소년, 갯벌에서 길을 묻다』와 『불어라 평화바람』을 읽고 서평을 썼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각자의 의문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번 움직이는 학교에서 기대하는 점을 나눴다. ‘방조제의 돌은 어디서 가져오나?’, ‘국가가 새만금의 문제를 알고도 계속 (사업을)진행하는 이유는?’, ‘간척사업을 하고나서 원래 어업으로 먹고 살던 주민들은 뭐 먹고 사는지’, ‘간척사업으로 메운 땅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왜 해수유통은 안 해줄까?’처럼 풀리지 않은 의문점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단순히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해수유통과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외치고 오면 좋겠다’ 같은 의견이 칠판을 가득 채웠다. 군산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쓴 포스트잇도 있었다. ‘지키고 싶고 살리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불확실한 기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16박 17일간 진행한 움직이는 학교 일정은 크게 군산 역사, 군산 미공군기지, 새만금 세 파트로 나뉜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가 미공군기지, 1990년대 새만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배운다. 이후 닷새간 군산 지역 이슈를 알리는 ‘미디어로 활동하기’ 조별

하제에서 보내는 편지

제천간디학교 17학년 양반, 군산에서 평화를 묻는다.



벼는 굴

이 프로젝트는 진행하게 된 계기는 원래 군산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실각자를 직접 보고 느낌에 이르는 존재감을 경험하게 '굴터' 바깥에 바깥으로 바깥을 열어 사립집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가 하제마을과 같이 투쟁하는 분들의 마음을 응원하기 하고 뒤 바깥에 존재를 해'활'해 만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질서도 도둑의 길을 할 수 없게, 가족과 바깥의 법 한 바깥을 만들 수 있는 바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평화가 하제마을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벼의 도둑처럼, 벼의 우리와 바깥에 정복에게 전하길 바칩니다.

2020년 6월 16일
제천간디학교 17학년
리, 진혁, 하은, 진영, 연우, 준은



©제천간디학교

활동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군산 땅에 둘러진 미군기지 철조망, 전투기 소음,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울창하게 자란 억새밭과 산소가 부족해 죽은 물고기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풍경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 듯하던 아이들은 일정을 진행할수록 구체적인 언어를 썼다. 단순히 ‘무서웠다, 싫었다’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조약과 방식을 통해 미군기지 땅을 야금야금 넓히는지,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어떤 과학적 작용으로 새만금 물이 썩어가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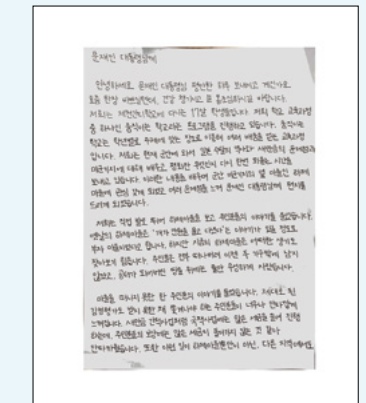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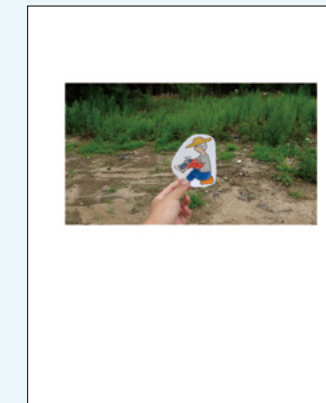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기까지 평화바람 문정현 신부님과 활동가 오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황윤 감독의 강연을 듣고 메모하는 과정이 있었다. 직접 미군기지 돌레를 걸으며 전투기 굉음을 듣고, 새만금 내부 바다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수질조사에서는 뒤통수를 세계 맞은 듯한 표정으로 “이정도인 줄 몰랐어요”라고 말했다. 각 일정이 끝난 뒤에 쓴 소감문에는 각자의 관점과 결심이 담겼다.

“예전에는 한미방위조약이 뭔지도 몰랐는데 조금 보니까 주요 내용 중에서 전쟁에 대해 우리나라에 기지를

많이 세우고 서로 전쟁이 일어날 시 도와주는 것인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조금 지나서는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세계에서 군수물품을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라는데 미국이 가만있을 리가 없다. 미군기지가 계속 있으면 전쟁의 위험, 공포만 계속 들 것 같다. 그냥 빨리 종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없애면 좋겠다.”(‘한미방위조약, 주한미군, 미군기지에 대해 내가 갖는 태도는 무엇이며 활동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오명민)

“새만금을 실제로 보았을 때 미군기지 때 보다는 더 와 닿았던 것 같다. 역시 자연은 직접 눈으로 봐야지, 백날 환경파괴 어쩌구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만금이 파괴된 모습을 너무 확실하게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그게 와 닿았던 것 같다.”(‘새만금을 보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하은)

짧은 글에 다 담을 수 없는 더 많은 내용은 군산 움직이는 학교 활동을 기록한 블로그(<https://blog.naver.com/yangban012>) 혹은 제천간디학교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jecheongandhi/>)과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SQVsmQibeCn0pjT5WHQPwA>)에서 볼 수 있다.





새마을금 전국사업소로 전화 발호제가 열리며
새마을금 "가장 많이 배워"한 새마을을
이름 붙여 전국 각지를 순회하여 농민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새마을을 건설하여
민간은행을 설립하여 농민을 해방시켜
민간은행을 설립하여 농민을 해방시켜
민간은행을 설립하여 농민을 해방시켜
민간은행을 설립하여 농민을 해방시켜

저 어새
몸길이는 75cm이고 복리는 종쪽
모양이다. 복리를 좌우로 20cm까지
덕어리를 향해서 저어내간다
얇은 하얀털과 몇몇 검은털은
등기에 서식하며
몸은 기, 배, 구, 수생근을 포함한다.
일출하기 1급
천변 저림을 2.05초이다.



당동어
주로 고향에서. 피막이 진흙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 하층
근처에서 산다
물속의 암석과 풍로 물 위에
돌아와 산다

노오세
 객별이나 습지를 위해서
 한다. 주로 갑각류, 조류
 우척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45종이 있고,
 한국에는 36종이 알려져 있다.
 작은우리는 저가 활용한다



시가 100 (연말)
 생활 2 백만 고수 같은 조강종
 일흔은 열이마
 우리나라 전국한 여자 몸도
 하는 데 우리 서해선에서
 한 번만 살고 있다
 반조종을 열기 전 이만조강종처럼
 는 전국의 영남 90% 만의 화로다

방계
하위계 과에 속하며
속의 길이는 30mm 폭은 35mm
이다
갯벌이나 해변에서 자라는
연못의 물대기나 논둑에 산다

**습지를 떠난
주인들**

습지에 다다르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오감을 때리는 것은 다른 아닌 생명입니다.
 당장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느낌은 유희합니다. (.....)
 그 어느 작고, 얇은 습지라도 그 곳에는 뭔가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저기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게.
 없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일 정도로 저곳은 생명체가 튀어나오게 생겼습니다.
 어디, 손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아뇨 그냥서 못합니다. 알기 때문이죠.
 함부로 뒤졌다가 무슨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습지주의자』 김한민

남수라마ul에서 하제포구. 남은 바닷길을 걸었다.
군데군데 드물게 남은 뿔에도 모르는 생명체가 살아있을까, 딛는 발마다 두려웠다.
메워진 뿔의 변두리, 막힌 바다의 너른 들은 펴고 고라니가 차지했다.
마지막을 차지한 동물의 자리였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남아주었으면 하는 낯선 바람이 남았다.
걸으며, 이 곳에서 흔히 마주했던 생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새만금에 오래 머물렀던 살아있던 것의 이야기다.

인포그래픽 _ 사과나무 소산

* IUCN RED LIST 지구 식물, 동물 종의 보전상태 목록

NE 미평가
 DD 데이터부족
 LC 관심필요
 NT 거의위험
 VU 취약
 EN 절멸위기
 CR 절멸위급
 EW 아생절멸
 EW 절멸

1.



Saunders's gull

검은머리갈매기

도요목 갈매기과

특징

흰색 눈테가 있다. 여름깃은 머리가 검은색이고, 겨울깃은 흰색에 어두운 무늬가 있다. 날개깃은 흰색이고,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붉은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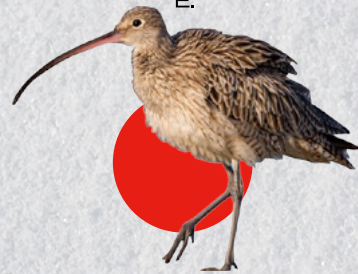
서식지

갯벌이 있는 해안과 강 하구에서무리 지어 서식한다. 1997년까지 겨울철새로 드물게 도래했으나 1998년 이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번식이 확인된다. 서해안 번식지는 대부분 매립지로 각종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어 번식지가 감소하고 있다.

1.



2.



2.



Far eastern curlew

알락꼬리마도요

도요목 도요과

특징

몸 전체가 갈색이고, 깃털 가장자리는 적갈색이다. 아깨깃은 검은 갈색이며, 가장자리에 톱니모양 얼룩무늬가 있다. 머리 길이의 3배나 되는 길고 굵은 부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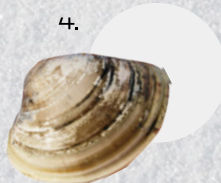
서식지

봄·가을에 찾아와 서·남해안의 갯벌, 하구 등지에서 머물다가는 나그네 새. 최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갯벌이 매립되고, 오염 및 불법 조업으로 먹이원이 줄면서 세계적으로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3.



4.



3.



Ellobium chinense

대추귀고둥

진유폐목 대추귀고둥과

특징

전체적으로 대추와 닮아서 대추귀고둥이라 불린다. 원시적인 형태지만 허파가 있어서 공기 호흡을 한다. 10월경부터 땅 속에 들어가 이듬해 3월까지 겨울잠을 잔다.

서식지

서·남해안의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고, 실제로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다. 연안 개발 및 갯벌 환경 악화로 인한 서식지 훼손과 감소, 환경 변화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심각한 멸종 위기다.

4.



Meretrix lusoria

백합조개

백합목 백합과

특징

상합·생합·대합·피합·참조개 등의 방언으로 불리기도 한다. 백합(白蛤)은 갯데기(갯벌)에 있는 여러 가지 무늬가 마치 백합(百合)과 같아 부르게 된 이름이다. 암갈색에서 회백갈색까지 다양하다.

서식지

조간대 아래 수심 20m까지의 모래나 펄에 서식한다. 환경남도를 제외한 전 연안해역에 걸쳐 분포하며, 그 밖에 일본, 타이완,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등지에도 분포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6.



7.



5.



8.



5.



Finless Porpoise

상괘이

고래목 쇠돌고래과

특징

주둥이가 없고 둥근 앞머리 부분이 입과 작각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인 돌고래와는 겉모습이 다르다. '물빛에 광택 난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슈유기, 무라치, 물돼지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서식지

우리나라 서해를 비롯해 인도-태평양의 온난한 해수역, 일본 북부에서 페르시아 만에까지 걸쳐 있다. 2011년 새만금 호수에서 상괘이 223마리가 질식사 소 죽었다. 고래 가운데 상괘이의 혼획량이 가장 많다.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6.



white-tailed sea eagle

흰꼬리수리

매목 수리과

특징

꼬리깃이 희기 때문에 흰꼬리수리라고 불린다. 꼬리는 짧고 둥근 마름모이며 흰색이다. 주로 연어, 송어 등과 같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 사냥의 명수.

서식지

북유럽으로부터 유럽, 러시아, 일본, 중국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한다. 흰꼬리수리 같은 맹금류는 멸종위기 종이 많다. 사냥이나 낚시에 의한 중금속에 오염된 소형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중금속에 중독되기 때문이다.

7.



black-faced spoonbill

저어새

황새목 저어새과

특징

부리가 검고 표면에 주름이 저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주름의 수가 많아지므로 부리를 보고 저어새의 나이를 판단 할 수 있다. 갯 태어나면 오렌지색을 띠며, 자라면서 점차 검어진다.

서식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저어새 번식지는 대부분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갯벌과 농경지에서 채식하는 저어새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경계심 때문에 조류전문가도 탐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8.



Pholis fangi

흰배도라치

농어목 황줄베도라치과

특징

몸이 길고 심하게 옆으로 납작하다. 미꾸라지처럼 생겼으며 몸 색깔은 연한 황갈색 바탕에 몸 옆구리에 15개 정도의 어두운 무늬가 있다. 연안의 모래와 펄 지역에 서식한다.

서식지

흰배도라치 치어 말린 것을 실효포 또는 뱀어포라고 한다. 실효를 뱀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서식처가 크게 감소되었고, 현재는 군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외해와 어청도 해역으로 밀려나 서식하고 있다.



처음 하제마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막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 봄날 하제마을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에게 남아있는 앞선 세대의 흔적 같은 지긋지긋한 농사본능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오랜만에 본 기지 밖 보리농사가 너무나 신기했고, 기지 철책선을 따라 심어진 참깨가 정겨웠으며, 마을 곳곳에 펼쳐처럼 변한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온갖 작물들이 제법 튼실하게 자리잡은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곳에 농사를 지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다. 무언가 모든 것들이 쫓겨난 이곳에서라면 가장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텃밭 농사가 제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농사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기노동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되거나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활동가라는 스스로에게 정해진 어떤 숙명 같은 삶이라면 그 활동가의 삶이라는 것이 발 딛고 살아가는 바로 그 장소로서의 땅과 연결되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농사는 항상 마지막

보루처럼 땅이 가진 힘에 의지해 땅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매우 느리지만,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작업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스레 군산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함께할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나로서는 자연스레 농사라도 지어서 나와 군산, 하제마을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기도 했고, 농사라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겨우 두 집만 남은 하제마을에는 여전히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같은 뜨내기는 감히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심지어 봄날 아무도 눈치챌 수조차 없는 풀 우거진 둔덕에서 돼지감자를 캐는 할머니들에게 농사는 다른 어떤 수확물에 대한 기쁨보다는 자신이 여전히 이 땅에 발 딛고 있다는 확신을 줄 뿐만아니라 하제마을 스스로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마법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제 농사

에 세 이

글과 그림_공룡 영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바탕에 있는 것이 어쩌면 하제마을의 농사가 아닌가 싶다.

물론 농사라는 것이 항상 즐겁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몸뚱아리 성한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아 곧 세상 모든 것과 작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농사에 대한 자부심만은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식놈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그 지긋지긋한 삶이 실제로는 소작농의 비루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잘 포장하는 어떤 고집 같은 것일 뿐일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빈한 자의 자기 뉘트리일지언정 그 당사자에게는 그 자체가 자기 삶에 대한 무한대의 긍정이 가능했던 보물 같은 희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가 뭐래도 자기 농사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말이다.

지금 둘러보면 예전에는 집터였을 것 같은 작은 텃밭들에는 들깨 수확이 한창이고 곧 있을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와 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심지어 미군기지를 둘러싸고 아주 작은 공터하나 낭비함 없이 온갖 채소들과 곡식들로 가득차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가을철에는 기지의 소란스러운 군용차량들이나 하늘을 씩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굉음과는 상관없다는 듯 추수가 한창이다.

그런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 보면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모든 일상들이 쫓겨난 곳에서도 농사만은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 아주 작은 공간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지만 어쩌면 가장 비인간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사람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인간들에 의해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이 모든 것을 황폐화시킨 현장에서도 언제나 농사는 이루어졌고, 우리가 많이 접하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투쟁의 현장에서도, 재개발 현장에서도 농사는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의 관심 따위랑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가깝게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사드배치 반대투쟁의 싸움 한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농사들이 이루어졌고, 대도시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용산재개발 반대투쟁의 그 엄청난 자본과 권력의 침탈 현장에서도



이름 모를 연대자들에 의해서 텃밭상자와 온갖 화분들에 상추며 고추들이 자라고, 그것이 투쟁에 함께 참여한 누군가의 소중한 한끼 밥상에 올라가곤 하였다. 그리고 내가 공룡들과 함께 연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현장이었던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도 작지만 소중한 텃밭이 만들어졌고, 우리들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는 밀양의 그 수많은 싸움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농사를 놓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모든 힘겨운 장소들마저 농사가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기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서 인지도 모르겠다.

군산 하계마을에는 별 다름게 없는 평범한 농촌의 어느 한적한 하루의 삶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런 삶이 가능해지려면 적어도 지금 하계마을에 있는 무엇인가를 빼내야 할 것이다.
느닷없이 들리는 굉음만 빼고 나면, 아니 미군 비행기만 빼고 나면, 아니 미군용트럭만 빼고 나면, 시도 때도

없이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만 빼고 나면, 또 무엇인가를 빼고 나면 평범한 일상, 진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아주아주 평범한 일상이 가능한 동네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각 지역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마다 저마다의 기억과 역사가 존재하지만 특별할수록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가령 너무 오랜만에 본 보리농사만큼이나 “목화 심으러 오실래요...?”가 주는 생경함이랄까?
미군기지 담장을 둘러싼 농사들, 그 마늘, 대파, 참깨, 들깨, 양파, 콩들이 버젓이 서있는 빨간 글씨의 경작금지를 우습다는 듯 넘어서듯이 나에게 하계 농사는 용산의 텃밭과 쌍차의 텃밭이 마지막 몸부림처럼 실낱같은 생명줄로써 새롭게 다가온 그날들처럼 연결되어 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하계의 농사를 보면서 본래 있었던 것들이 떼떽하게 자리잡고 있음으로 해서 주는 익숙함 때문에 나는 좀 더 힘차게 그리고 좀 더 희망적으로 하계마을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거림낌 없이 “고구마라도 심자!! 바질도 좋잖아, 쌍추면 어때!”
“고라니가 먹어도 좋고, 하계마을 방문한 누군가가 따

먹어도 좋고, 아니면 가을밤에 함께 모여 고구마 캐서 구워 먹으면 더 좋고...!!” 었는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난생처음 들었던 팽나무의 영험함, 까마득이 물랐던 일년 농사의 풍요를 점쳐준다는 팽나무를 알게 된 지금이라면 적어도 몰라서 잊혀지는 것들, 파괴된 농막, 버려진 경운기 같은 슬픈 풍경이 아니라 “텃밭도 이 정도면 큰 농사다” 싶은 옛 하계주민들처럼 “심은 듯, 저절로 자란 듯, 거저 얻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까 보이는 것들, 살았으니 알 수 있는 것들, 살아야만이 살릴 수 있는 것들...”과 함께 하면서 할머니들만의 고향이거나 잊혀진 집터가 아닌 나만의, 우리만의 아주 특별한 밭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적어도 하계마을이 “소거와 점유” 사이를 가르는 새로운 회귀의 장소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방부가 끊임없이 세워놓는 경작금지 꾀말을 둘러싸고 모든 곳에서 경작은 시도되어야 하고 시도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다는 것이다.

내년에도 하계마을은 누군가가 심어 놓았던 뽕나무며 밤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테고 대나무 숲은 우리에게 풍족한 죽순 요리를 대접해 줄 것이다. 우리가 잊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들 사이로 나아가 경작하고 점유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불러들일 수 있다면 말이다.

하계의 농사는 우리에게 복종이 아닌 요란스럽고 유별스러운 정도로 감정적인 저항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은연중에 “복종함으로써 통치에 참여한다”고 믿는 어쭙잖은 이중의 자기기만에서 벗어나도록 훈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복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폭력에 길들여지는 것이다. 복종을 거부하는 것, 나 스스로 내 밭로 걸어나가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 그것이 하계 농사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힘이고 생명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하계에 나의 농사를 짓겠다. 누군가를 불러들이고 함께할 우리들의 농사를. 전쟁을 막고, 기지를 몰아내는 힘찬 농사를 지어보자. 그렇게 함께 하는 이들 각각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확장되는, 전쟁을 막아서는 농사를 지어보자는 것이다.!!





#살고 있다.

글_ 두릅 다숨 일러스트_ 사과나무 시내

‘캘리포니아에서 온 편지’를 생각하다가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노래 가사 중 ‘내 인생의 영토는 여기까지’를 생각하다가 테넷을 떠올렸다가 택배이야기를 생각했다가 삐약삐약복스의 지역의 사생활 ‘부산’편을 보고 감동 받았다가 사랑하는 언니들과 이야기하다가 모니터 앞에선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서 포스트잇에 끄적끄적 써내려 가다가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으음. 이게 무슨 냄새지.”

쿵쿵거리며 주변을 살펴보니 머리카락처럼 길게 가지를 늘어뜨린 나무가 보인다.

서벅서벅. 가까이 가보니 무언가 반짝인다.

아주 작은 포도가 잔뜩 매달려있다.

스스스.

바람이 불며 가지와 잎사귀가 나부긴다. 달콤한 냄새도 코끝에 스쳤다.

무언가 기척도 느껴졌다. 선선한 바람과 달콤 시큼한 냄새 때문에 착각한 것도 같았다.

어디서부터 걸어 온 것인지 가방을 멘 등과 어깨엔 땀으로 축축했다.

그늘진 곳이 바로 옆에 있었다. 안아도 넘칠 만큼 큰 몸통을 가진

나무였다. 무슨 나무였던가. 잠시 물을 마시려 근처에 앉았다.

스스.

무언가 차가운 것이 손끝에 닿았다. 놀라서 바로 내려다 봤지만 이상한 건 없었다.

그렇게 땀을 식히고 있는데 움직임이 보였다. 굉장히 빠르는데 매끈한 것이었다. 잠깐이라도 눈을 깜빡이면 순간이동을 하듯 움직여버려 눈으로 쫓기 바빴다.

잡을 생각도 가까이 갈 수도 없이 경계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린다.

“어서 가버려. 너 같은 거 정말 싫어. 네가 앉은 그곳 육백 년도 넘게 산 팽나무 뿌리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버려. 가라고!”

작고 작았는데 온 몸으로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그때 쉬이익. 후우우웅.

머리 위로 전투기가 지나갔다.





눈이 번쩍 떠졌다. 선풍기가 탈탈탈 돌아가고 있었고 서늘해진 몸통 위에는 옷이 말려 올라가 있었다. 매무새를 다듬고 눈만 껌뻑이며 천장을 바라봤다. 꿈인가. 걸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잠이 들려고 했다. 아직 출근시간 전까지 세 시간은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올려 퍼진다. 매일 반복되는 일터에서 그나마 흥미로운 순간은 무언가 읽을 때다. 분명 누군가를 응대해야 하는데 읽기에 빠져들어서 아쉬울 때가 있다. 내 앞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던 때도 있었는데...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잡지를 읽는다. 짧은 시간에 봐도 흐름이 덜 끊겨서 딱 좋다. 중간에 그림과 사진 페이지도 황홀한데 보이지 않는 화면이 재생되는 글도 시간을 빨리 돌린다.

곧 애정 하는 작가님의 글이 실린 잡지도 나온다고 했다. 후원목표에 도달해야만 받아 볼 수 있을 텐데 얼마나 펀딩되었으려나. 100% 펀딩완료! 가 뜨기만을 생각하며 커피를 내린다.

택배가 왔다. 일터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알 수 없는 상자가 배송된다. 오늘은 포도였다. 내 택배는 언제 오나 궁금해진다. 손가락을 몇 번 터치해 주문내역을 들여다본다. 주소를 잘 못 썼던가. 벌써 배송완료 처리가 되어버렸다.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쌓여있는 대체휴무가 떠올랐다.

조심스럽게 일정을 파악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휴무를 쓴다고 말해야 할 터였다. 쉬는 거 그냥 선다고 하면 되지 뭘 그러냐는 물음도 있겠지만 부탁해야 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내 일을 해야 하니 부담스러운 순간이었다.

이사를 몇 번 다니지도 않은 것 같은데 회사와 원룸들 주소가 섞여있다 보니 몇 년 전 일터의 주소가 펀딩 페이지에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었나 보다.

참 정 많고 말 많고 일 많던 곳이었었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조금 걸어서 도착.

도착했어야 하는데 그 전의 모습은 어디가고 행한 모습이 되었다. 여기에 보건소가. 슈퍼가 있었는데 말이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귀를 때리는 굉음만 주기적으로 들렸다. 끼고 있던 이어폰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버스 창가에서 본 주변 모습도 낯설었는데 내리고 보니 이젠 아예 뿌리째 뽑혀나간 모습이였다. 그래도 걸어서 부동산, 순두부집을 찾아서 전 회사 건물 앞에 왔다. 주변이 아수라장이었다. 튀어나온 철근과 부서진 시멘트. 몇 층이었는지 알 수 없는 건물의 반쪽이 있었다. 쉬이잉. 푸이잉. 소리는 멈출 줄 몰랐다.

익숙한 우편함이 보였다. 그렇지만 신문과 먼지 가득한 우편물 속에서 택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한참을 뒤적거렸지만 글씨도 번져있어서 다 뜯어봐야 할 판이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았다. 소리 때문에 머리로 아파오는 것 같았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텀블러엔 물방울만 있었다.

4층으로 터벅터벅 올라갔다. 집기나 바닥에 쓰여 있던 글씨가 보였다. 일층에서 볼 땐 몰랐는데 올라와보니 입구에서 정면으로 크게 뚫려 있었다. 그냥 밖이 훤히 다 보이는데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낮이 익었다. 그때 전투기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가까웠는지 건물도 울렸다. 부서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살아있는 공간인 줄 알았는데 허물어지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얼른 건물을 빠져나왔다.

택배 찾기도 잊은 채 나무가 보인 쪽으로 향했다. 올라다보니 그건 팽나무였다. 옆엔 오디나무였고 맞은편에 도마뱀이 있다. 아직도 그대로 살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단 상

기억과 상상 의 사소한 연결 : 하제마을에서

글과 사진 _ 휴식 화연



ruins.
material vesti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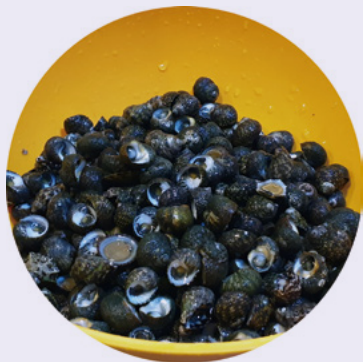
살아있는 마을의 희미한 흔적.
콘크리트 집터, 버려진 그물, 녹슨 농구대.
끊어진 전선, 널굴 뒤덮인 우물, 뿔혀버린 전봇대.
풀과 나무가 무성하다.

imagining
the unimaginable

누군가에게 이곳은 기억 속의 고향이다.
남아있는 이들에게 놓을 수 없는 곳이다.
기지의 권력은 존재의 흔적을 지운다.
기지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
딩그러니 남은 괴상한 얼굴의 팽나무 한 그루
힘에 겨워 보인다.

narratives
and storytelling

마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삶의 서사를 기록한다.
그들의 기억과 나의 상상을 연결한다.
황폐한 그곳에서 평화를 그린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압당한 시절은 언제나 현재일지도 모른다.

지나온 과거야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 좋든 싫든 나를 버틴 시간만큼이나 면역력이 생겼기 마련이고, 다가올 미래야 아직 오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기에 미뤄놓은 방학숙제가 주는 압박감 혹은 짙은 새벽안개가 주는 알수 없는 공포감 정도겠지 싶다.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은 언제나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직접적이기에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현재의 시간에 겪는 모든 일은 그야말로 뿔을 수 없을 정도로 피부 깊숙히 박힌 가시의 고통처럼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각인되는 고통이 아닌가 싶다.

스스로는 나를 “활동가”라는 역할로 자리잡고자 하는 나에게도 가장 압당했던 시간이 현재의 지금이라면 이 시간은 아마도 작년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제주”에 참가하다 만난 어느 점심의 햇살에서 시작한 것 같다. 그야말로 누적되어 무거워진 어떤 감정들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들이닥쳐 마음에 자리잡아버린 그날 오후의 햇살 한줄이 아닌가 싶다.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제주"라는 프로젝트는 전국의 영상, 잡지, 음악 등의 미디어 활동가들이 제주에 모여서 현재 제주가 겪는 다양한 투쟁과 현장에 결합해 우리는 어떻게 현장에 함께할 수 있고, 제주의 고단한 투쟁하는 삶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기간에 미디어에 담는 프로젝트였다. 한마디로 “현장에 결합한 미디어”에 대한 실험이라고 보면 된다.

당시 나는 프로젝트 보조진행의 역할을 맡았다. 주되게는 강정마을 성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미디어 활동가들을 위해서 하루 세끼의 식사를 준비하며 지냈다. 하루종일 부엌에만 머물거나 잠깐 지금은 사라진 피스아일랜드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하루 일과였다.

물론 많은 참가자들이 외부활동으로 바쁜 날에는 제주 강정 활동가인 종환 삼촌이 주방을 맡고 있는 삼거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잠깐의 여유가 있기도 했지만 대개 내가 맡은 주방을 떠나지 못하며 지내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4일째 되던 날, 주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깐의 여유가 생겨서 소위 제주도에 왔으니 반나절이라도 여행을 해볼까 싶어서 길을 나섰다.

근처 마을에 있는 작은 문화유적 하나를 보고나서 이른 점심을 먹으려고 맛집을 검색하다가 제주도 특색 요리를 먹어보자는 마음에 찾아간 곳이 유명 TV 프로그램에 나온 보말칼국수 집이었다.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아서 주차장 의자에 앉아 시간 죽이며 햇빛을 쬔고 있던 그 순간, 무언가 목격하고 어두운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고,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무거워진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말칼국수 따위 포기하고 정처없이 제주 바닷가에 나가 멍 때리며 시간에 짓눌려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짓눌려진 감정과 시간들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지만 왜 그런지 몰랐다.

'지쳤나...?...내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어떤 시점이 이제야 명확해진 것 같다.

물론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정리되지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무기력하게 흘러가다가 지금에서야 나오는 것이 문제긴 하다.

제주도 프로젝트 이후로도 활동은 지속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자주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알수 없는 마음들로 인해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물리적 시간이 지나가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계속 같은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아니 갇혀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많아져 감정들이 날카로워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나를 바쁜 일들로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며 지내다 군산 평화바람 오이의 나들이 제안으로 가게 된 신시도 바닷가. 수영을 하기엔 좀 쌀쌀하고, 마땅히

갈아입을 옷도 없어서 시간 때울 겸 따게 된 바다고동, 일명 보말. 그러다 급작스레 마주하게 된 그날 제주 바닷가의 바로 그 햇살, 그 간지러운 따스함에 시간이 멈추어 버린게 아닌가 싶다.

생각해 보면 보말칼국수가 뭐라고 그 시간에 혼자서 맛집이라는 곳을 찾아가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만 것일까? 제주도라는 상품화된 이미지 안에 숨어 있는 소비하고픈 욕망의 한가운데서 우습지도 않게 새로운 아니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고 먹고 싶어서 찾아낸 그 보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스워서 얼굴 화끈거리며 도망나온 그 시간 안에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활동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고 그 힘으로 지치지 않으려는 노력들 속에서 정작 “내가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쫓쫓...” 하는 나름의 자기비하랄까? 어떤 쓸모없어짐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다.

활동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자랑하거나 전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투쟁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 적어도 개인의 변화들을 동반한 사회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쩌면 나보다 특별히 나을 게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렇게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불안감이야말로 세상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최근들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마치 근사하면서도 이쁘고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따뜻한 저녁만찬자리에만 머물고 싶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가 불안해진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순간들을

자신의 인정욕구를 실현하고자하는 전시장과 퍼포먼스로 몰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경쟁하고 소비하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각축장 안으로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불안을 만들고자 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 불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더 불안해지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율배반적인 삶의 지속,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라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본의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양자택일로만 그 가치들을 몰아가 이젠 더 이상 변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 사회를 만든 건 우리가 아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들의 생명과 삶과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를 콜로세움으로 밀어 넣어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아마도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들 모르는 바도 아니고 심지어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우리들은 -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 - 서로에게 비수를 꽂아야 한다는 게 현실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 비극일지도 모르겠다.

보말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값어치가 있게 되는 우리들의 활동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원래 신시도 바닷가에서 보말을 따기 전에 나의 주방에는 보말이 있었다. 인디와 오이가 함께 따고 손질해서 가져다 준 보말, 공룡 활동가들과 함께 칼국수 끓여먹으라고 준 것인데 받자마자 냉장고 안에 넣어 놓았다. 보말을 받자마자 어떤 부끄러운 한 때를 들킨 것 같은 마음에 “에잇! 보말 따위가 뭐라고..” 하는 생각으로

애써 외면한 채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과 조금은 지쳐버린 나의 어떤 감정을 냉장고 안에 처박아 두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오후의 햇볕을 받으며 갯바위에 붙어있는 보말을 땀 흘리며 잡고 있는 그 순간에서야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니 따온 보말을 오이 말대로 소금물에 해감하고 삶아서 일일이 이쑤시개로 살을 발라내고 내장과 살을 분리해서 식재료로 다듬어 놓은 후에야 밀려드는 아주 작지만 소중했던 어떤 시간들이 스물스물 커다랗게 자라나는 마음의 한 편이 그렇게나 좋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또 다른 현재가 나에게 다가온 것 같다.

보말을 다듬으며 울컥하는 마음을 달래고자 된장 맛을 음미하듯, 통으로 몇 개를 먹고, 내장만 발라서 들기름에 찍어 오물오물 거리며 보말의 맛을 상상해 보고 보말 요리법을 떠올려 보았다. 보말은 일종의 요리장을 만든다고 보면 된다. 보말 특유의 씹쌀한 맛은 보말의 내장에서 나오고 조금의 고소한 맛을 주면서 조개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건 들기름이다. 이렇게 내장을 들기름에 볶다가 밀가루나 찹쌀가루 혹은 멥쌀가루를 넣어 볶아서 만든다. 발라낸 살은 일종의 고명처럼 쓰인다. 이렇게 만든 일종의 보말장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가령 보말칼국수는 해물칼국수나 된장칼국수를 끓이는 방식과 똑같다. 다만 맛이 강한 해물을 넣지 않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좀 더 색다르게 먹고 싶으면 보말파스타를 만들어도 된다. 기본 크림파스타를 만든다가 요리 마지막에 보말장을 넣어주고 고명으로 보말살을 넣어 완성하는 방식이다.

보말을 먹다보면 아주아주 특별하지 않는 일상의 맛, 씹쓸하고 약간 고소하지만 그다지 도드라지 않는 맛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일상을 마주한다는 것이 매우 비극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일상으로 내려오는 순간

너무나 미약하고 별것 없음에 절망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으로 포장하고 오래 묵은 글을 컴퓨터에서 지우듯 우리는 가급적 일상을 지우고 특별한 어떤 순간만 드러내고 소비하고 재빨리 갈아 치운다. 그래야 근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불안해하지 않고 위로받으며 인정받는 삶이 된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코로나가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지금은 그나마 있던 작은 관계마저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 사실상 일상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창궐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탈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비하를 하거나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에 빠진 나머지 주변을 살피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보말 따위 한 번은 재미로 먹을 순 있지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화려한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활동마저 좀더 관심받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활동가로서의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현장에서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활동가로서 때로는 작가로서 가끔은 프로젝트 기획자로서의 자기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느새 활동이라는 것이 일상과 괴리되고, 심지어 이런저런 욕망들에 휘둘리다 보니 내가 가진, 아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룡이라는 활동가들의 에너지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로 소진되어버린 현재를 겪으며 나에게는 언제나 처음의 마음.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절대 외면하지 않는 일상의 삶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졌나 보다. 제주에서의 보말, 군산에서의 보말, 오이의 보말, 인디의 보말, 그리고 재미로 한두 개 따볼까 하다가 땀흘리며 심지어 허리아픈 것마저 감수하고 따온 보말, 몇 시간을 운전해서 공룡주방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쑤시개로 보말을 다듬으며 절반 이상을

먹은 바로 그 보말. 그 보말과 좀더 익숙해져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적어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자 했던 안락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불안을 받아들이고 나의 존재가 고정된 주변의 삶들에 작은 파장과 갈등이라는 불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동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순간들이 좀 더 지속되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불안을 만들고 받아들이고 그 불안들을 변화의 순간으로 밀고 나가고자 하는 순간순간마다 지치지 않고 움직이며 누군가와 저녁 한 끼를 해 먹을 수 있는 그 요리의 순간이 그나마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현재 아닐까 싶다. 그런 순간순간을 내가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기를 보말을 다듬으며 다짐했었던 것 같다. 그래야만 보말에게 미안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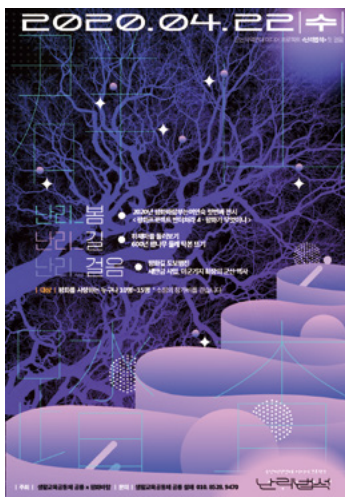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심자

글_공룡 설해



난리법석
유튜브



<난리법석>은 새만금과 미군기지라는 한국 사회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군산이 어떻게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를 모색하면서, 군산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기록하고 알리며 더 많은 연대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3월, 평화바람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이라는 두 단체의 제안으로 시작해 군산 인근의 지역 활동가들과 다른 여러 지역에서 모인 미디어활동가,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가, 음악가, 디자이너, 작가,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3년간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사업으로 주민들이 삶을 잃고 흩어져야 했던 하제마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미군기지와 새만금 사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군산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 왔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잡지와 음악, 영상, 라디오 등의 매체로 기록하고 알려 보려고 합니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의 하제마을은 미군기지 중에서도 탄약고에 바로 인접한 마을입니다. 갯벌이 발달해 조개잡이로 큰 부락을 이룬 곳이었지만 새만금 사업 이후 마을은 생기를 잃어갔고, 미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명목으로 이주가 시작된 이후로는 하제마을을 비롯해 5개 마을의 약 644세대 가구가 거의 다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전투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불안감에 시달리면서도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온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거주지나 생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고, 이들의 경험과 기억은 말과 글로 기록되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제마을에는 아직도 두 가구의 주민들이

남아서 살아가고 있었고 빈 땅에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오래된 팽나무와 소나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마을에는
복사꽃과 목련이 화사하게 피었고 돼지감자를 캐러
온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산딸기와 두릅은 어디에서 따는지, 마을
곳곳에 무엇이 있었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 아직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골벽적인 마을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팽나무 아래 고구마와 목화를 심고,
오디와 죽순을 따며 하제마을의 일부가 되어
보았습니다. 조금씩 발걸음을 더할수록 하제마을은
언제든지 군사기지와 무기가 들어와도 되는 폐허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아있는 집들의 철거는 계속됐고, 펜스와
경작 금지 꾀말이 늘어갔습니다. 이주하지 않은 두
가구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국방부가 제기하는 토지
인도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가 매입한 땅을 미군에 공여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하제마을의 생태
문화적 가치를 지켜낼 것을 군산시와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계절마다 미군기지 둘레를 따라 걸으며 안내해
주는 활동가들로부터 기지가 어떻게 확장되고 새로운
무기들이 들어왔는지, 환경오염과 소음 등 어떤 피해를
만들어 왔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몇 번씩이나 귀를 멍멍하게 하는 전투기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군산시 옥서면의 60% 이상을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주한 땅에 또다시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새로운 탄약고가 지어진다면
미군기지 인근의 피해 지역 또한 확대되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삶을 잃어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활동가는 자신이 기지감시
활동을 시작했던 20여 년 전과 비교해 기지는 점점
건물이 늘고 번듯해져 가는데 마을은 그대로이거나
쇠퇴해 가는 게 눈에 보여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곳에 찾아오기 시작한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벌써 풍경이 짝짝 놀랄
만큼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있었던
건물과 집터들이 어느새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헌병과
경찰들이 와서 촬영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헌병들이 문밖으로까지 나와서 활동을 막는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득 20여 년째 이어지는
미군기지 정문 앞 수요집회를 준비하면서 가끔 한두
명이 앉아 있다가 올 때도 있었다고,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다고 말하던 활동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제마을에서 주민들을 마주쳤을 때 “사람들이
좀 있어야 할 건데..” 하며 돌아서서던 뒷모습도
떠오릅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잘 보이지
않지만, 전국 각지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다시금 여러 사람의 발걸음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 난리법석의 걸음

2020. 3. 14~15	하제마을과 미군기지 일대 첫 답사 및 촬영	
2020. 3. 25~26	- <평화바람부는여인숙> 전시 '평화가 무엇이나' 준비 - 하제마을 2차 답사 및 촬영 (안동네 길 촬영) - 하제마을에 살고 계신 서춘길 님 인터뷰	하제보건소 철거
2020. 4. 1~2	- 하제마을 3차 답사 및 촬영 (돼지감자 캐는 할머니들) - 미군기지 공여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촬영	
2020. 4월 중순		미군기지 탄약고 폭 철길 정비
2020. 4. 22	- 난리법석 첫 번째 걸음 “봄 길 걸음” : '평화가 무엇이나' 전시 관람 : 새만금-기지둘레길 걷기 (남수라에서 하제마을로) : 팽나무 아래 고구마 밭 만들기	태풍에 쓰러졌던 할머니 소나무 베어 감
2020. 5. 15-16	- 야간 헬기 소리 들리는 평화바람 & 비 오는 하제마을 팽나무 촬영 - 모색 워크숍 장소 답사	
2020. 5. 22-24	- 난리법석 두 번째 걸음 “모색 워크숍” : 강의 & 평화의 문화 워크숍 : 군산기지 평화순례 (미군기지 정문에서 하제마을로) : 윤철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전 사무국장 인터뷰 : 하운기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위원장 인터뷰 : 팽나무 아래 고구마 밭 잡초 제거	하제마을 입구에 문 설치
2020. 6. 9		팽나무 수령 감정을 위한 한국 임업 진흥원 시료 채취
2020. 6. 10	- 하제마을 죽순과 오디 채취 ('전쟁을 끝내잼' 만들기)	
2020. 6. 12	- 군산 시내 주공아파트로 이주한 하제 주민 최경순 님 사진 인터뷰	
2020. 6. 19	- 난리법석 팟캐스트 <문전박대> 첫 번째 녹음	

2020. 6. 21-22	- 난리법석 세 번째 걸음 “할머니 보따리 캠핑” : 하제 죽순과 오디로 만든 음식 나누기 : 최경순, 김희자 님 모시고 하제마을 이야기 듣기 : 화산 낙조와 함께하는 상영회와 캠핑	
2020. 6. 26		팽나무 수령 537±50년으로 확인됨
2020. 7. 5		소나무 팽나무 보호수 표지석 재설치
2020. 7. 19-20	- 난리법석 스핀 오프(겉다가 씬) “안동일천” : 하제마을을 기록한 이재각 사진가 인터뷰	
2020. 7. 21	- 난리법석 팟캐스트 <문전박대> 두 번째 녹음 - 군산의 맛 보말 채취와 팽나무 아래 목화 밭 만들기	
2020. 7월 말		그레이이글 격납고 20동 완성
2020. 8. 17-18	- 음악팀 1차 송라이팅 캠프 (하제마을) : 기획 회의, 하제마을 답사 및 소리 채집	
2020. 8. 18	- 난리법석 팟캐스트 <문전박대> 세 번째 녹음	
2020. 9. 18-20	- 음악팀 2차 송라이팅 캠프 (청주 공룡)	
2020. 9. 25-26	- 난리법석 네 번째 걸음 “달달한 수확과 인사” : 팽나무 아래 고구마 밭 수확 : 하제 주민들과 한가위 인사 나눔	하제마을 전신주 철거
2020. 9. 28-29	- 군산미군기지 확장과 주민 피해 영상 촬영 : 김민아 전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구중서 현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	
2020. 9월~10월		노후한 격납고 6~8동 철거
2020. 10. 7-8	- 음악팀 3차 송라이팅 캠프 (청주 공룡)	
2020. 10. 30-31	- 2020 하제마을 평화문화제 “팽나무 팽팡 문화제” : 군산미군기지 바닷길 걷기(하제에서 남수라 마을로) : 음악회, 전시, 평화 영화 상영회, 평화 캠핑촌 : 하제/팽나무 지킴이 대회	

음악과 연대 : 낯섬과 마주하기

글_공룡 재환



군산지역연대 미디어프로젝트 난리법석엔 음악팀이 있습니다. 현재는 멤버가 많지는 않고, 일단 이형주, 오재환 이렇게 딱 두 명에서 하고 있어요. 지난 5월에 군산에서 진행된 난리법석 워크숍에서 본격적으로 팀을 꾸리고, 군산의 이슈와 관련해서 음악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해볼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게 이것저것 꽤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엔 그렇게까지 많은 일을 하진 못했어요. 8월에 하계마을 사전 답사를 다녀왔고, 그 이후엔 간간히 만나서 군산에 관한 음악을 함께 작업했구요. 아, 10월 하계마을에서 열리는 팽팽 문화제에서의 공연도 기획을 했네요. 처음에 상상했던 것에 비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 많지 않아서 좀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씩 하지는 않았습니다. 난리법석이란 프로젝트가 애초에 장기적인 연대를 목표로 삼기도 했고, 아주 잠깐 화려한 뭔가를 보여주고 사라지기 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군산과 오랫동안 친구가 될 사람을 천천히 만들어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음악팀의 멤버들은 이번 프로젝트 이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음악을 가지고 현장에 연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으로 연대를 한다는 게 뭔지 대답을 하는 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현장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만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묘하게도 현장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냥 내 노래 갖고 와서 부르고 박수받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연대라는 게 나랑 상관없어 보이고 나랑 닮지 않은 사람과 상황에 의지를 갖고 개입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영 틀린 건 아닌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음악팀은 이번엔 좀 더 친근하지 않은 음악에 도전해 보는 중입니다. 노래의 길이는 꽤 긴데, 명확한 멜로디나 가사는 거의 없고, 반복되는 소리의 질감으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이에요. 그래도 대충 아무거나 만든 다음 군산 노래라고 우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계마을에서 느꼈던 것들, 하계마을의 소리들을 나름대로 음악에 담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원래 잘 하던 음악이 아니라서 얼마나 완성도 있는 걸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느끼고 고민한 것들이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에게 약간이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음악을 다 완성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안에 3~4곡 정도의 음악을 완성할 거고, 음원을 정식 발매하지는 않을 거지만 온라인 상에서 들을 수 있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면 일단 올해의 난리법석 음악팀 활동은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내년 활동은 뭐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급하지 않게 군산과의 관계를 이어 나가면서 올해보다 한 발짝 정도만 더 나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군산에 음악으로 함께 연대할 다른 친구들을 한두 명이라도 더 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기 낮긴지려우신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글 _ 평화바람 오이

군산의 오래된 싸움, 미군기지와 새만금 개발 문제를 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워보자고 모였을 때 '난리법석에서 뭘 해야하나.' 고민을 했다. 난리법석에는 잡지팀, 영상팀, 음악팀이 만들어질 거라고 했다. 잡지팀, 글 쓰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영상팀, 어려운데다 체력도 못 따라 가고, 음악팀, 엄두도 나지 않는 능력 밖의 것. 내가 할 수 있을만한 걸 하자 싶었고, 그래서 접근이 쉽고(해봤으니까), 장비도 가볍고(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모이기만 하면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팟캐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군산미군기지와 새만금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난리법석의 잡지팀, 음악팀, 영상팀이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홍당, 참깨, 오이)는 그 난리법석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만들기로 하고, 시작했다.

구독자 19명, 카테고리 순위 193위(날팎은 '시사'), 전체 순위 6,476위. 지금 팟빵에서 날팎이 차지하고 있는 숫자다.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이나 <듣똑라>, 너무나 좋아하는 <영혼의 노숙자>, 익산의 <재미in라디오> 등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꼬박꼬박

한 달에 한번씩 업로드 하고 있다. 월1회 업로드가 게으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닥 성실해보이지 않는 멤버들이 거르지 않고 5회차까지 업로드한 건 기특한 일이다(최근에는 깍두기 인디가 함께하면서 팀의 성실도와 신뢰도가 높아졌다). 너무나 고맙게도 꾸준히 댓글을 남겨주고, 날팎이 없어질까봐 걱정해주는 애청자들도 있다(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한 날팎을 썩 훑어보자면 1회는 설해의 난리법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 2회는 노잼 인디 선생의 잡지팀 이야기, 3회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노래가 있는 음악팀, 4회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찼잘잘 막힘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홀린 딸기의 종전선언 소개, 5회는 하는 일이 많아도 너무 많은 청주 공룡의 박영길님의 이야기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 앱에서 '문전박대'를 검색하거나, 아래 QR코드를 스캔해 찾아가면 들을 수 있다.



난리법석 팟캐스트
'문전박대'



“왜 재미도 없는데 니들끼리만 그렇게 웃어대느냐?” 종종 듣는 이야기다. (아직)듣는 사람이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날팎이지만 적어도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재미있고, 웃기다. 그래서 일단 좋다. 뭔가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힘, 재미란 것이 갖춰진 것이니까. 날팎에서 다루는 내용의 풍부함이나 듣는 이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재미는 점점 채워가면 되니까. 사실 날팎의 업로드 회수가 늘어날수록 조금씩 더 잘 해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도 하다. 어쨌든 구독자나 조회수, 댓글이 많지 않아도, 지들끼리 재미가 있다는 것은 팟캐스트의 첫 번째 매력이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날팎을 들으며 제일 괴로운 일은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게스트 중에는 자기 목소리가 듣기 힘들어서(얼굴이 화끈거리고, 닭살이 돌아서) 아직 듣지 못한 분들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힘을 내서(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힘을 내야하는 일인가 싶지만) 듣다 보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나와 다른 이의 말투와 말버릇, 대화하는 태도와 방식을 알게 된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생각하게 된다.

녹음할 때는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지만 편집하는 시간, 업로드한 파일을 듣는 시간은 우리가 나눈 대화를 복기하는 시간이다. 낯선 내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를 잘 듣다보면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발견하는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재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3회는 언제 올라가요?” “게스트가 예고한대로 안나왔는데 왜 사과 안하나요? 사과방송하세요.”

날팎을 혼내는 말로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다. 청주에서 사과하라는 애청자의 질책을 듣고, 제주 강정에서 얼른 새로운 회차를 업로드하라는 애청자의 재촉을 들었다. 지들끼리 낱낱대는 방송을 함께 들어주고, 심지어 혼내고 재촉까지 하니 너무 기쁘고, 애청자님들이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다. 호수jj, malaikaju, 칭행, 찐짜노, 흥기킵, 무명씨, 허씨부인, 군, 오주여나의마음이, 유니를 비롯해 댓글을 남겨주지 않은 애청자에게도 내내 잘 들어주시길 부탁한다. 출연하고 싶다면 언제라도 환영이다.

날팎은 난리법석이 진행되는 3년 동안 별일없이 유지해가는 것이 목표다. 그 시간 동안 모시고 싶은 게스트,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다. 난리법석에 함께 하고 있는, 난리법석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미군기지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새만금의 목소리도 담고 싶다. 그리고 강정이나 평택, 성주 등 다른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힘을 키워주는 평화교육가의 이야기도 듣고 싶다.

듣고 싶은 이야기, 모시고 싶은 손님도 많은데 이걸 다 하려면 업로드 주기를 줄이거나(월 2회 이상?), 날팎2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둘 다 다 이뤄지면 참 좋겠다. 날팎에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와주시라.

모든 것이 좋았지만 그래서 슬펐던 가을 답사길

글 · 공룡 영길

지난 봄부터 기필코 올 해안에 한번은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갈대가 좀 죽는 계절이 오면 꼭 걸어보리라 처음 마음 먹었을 때만해도 이맘 때가 되면 무척 추워서 걷는 길이 고생스러울거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조바심이 났던 터였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팽팡문화제 준비 때문에 더 추워지거 전 별 좋은 가을날에 어떤 행운이 찾아온 듯 답사길에 오를 수 있었다.

요즘들어 몸이 많이 움추러들어서인지 요 며칠 무리한 탓인지 항상 문제였던 허리가 딱 이때를 맞추어 이상징후들이 나타나 몸보다는 마음적으로 긴장을 많이 했다. 그래도 함께 걷자고 제안하고 앞서서 걸어가 줄 사람들을 믿고 호기롭게 나선 길이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몸이 안 좋으면 항상 의지할 누군가를 찾는 버릇이 있는데 이 날은 전날부터 이 버릇이 도전 참이라 좀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매우 편하게 해주었다. 의지해도 좋으니 함께 하자는 그 마음이 따뜻했을까?

이참에 나만 걷지 못해서 미안하고 나만 보지 못해서 서운했던 것들을 잔뜩 마음에 담아 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길이었기에 평화바람에서 출발할 때부터 살짝 흥분된 마음이었다.

하제포구에 차를 대고 공사관계자 외 출입금지 옆으로 난 공사차량 전용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요 며칠 새만금공사 주민대책위 주민 맞이 출입통제에 다선 상황이라 혹시나 출입을 막아설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침이라서 그런지 어제까지 교대로 상주하던 감시초소에 인기척이 없던 관계로 시작부터 너무나 평온하게 걷기 시작했다.

답사길 초입은 공사차량이 다녀서 예전 시골 신작로처럼 마른 흙이 드러난 2차선 도로 만큼의 넓은 길이었다. 흙이 마르고 고운 모래흙이라서 그런지 조금의 바람에도 메마른 먼치가 날리기도 했지만 마치 눈내리고 처음 걷는 길처럼 지나가고 있는 일행들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았다. 우리 일행을 안내하던 활동가의 말대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모든 곳에 온갖

살아있는 생물들의 발자국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고라니 발자국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새발자국, 또 모를 산짐승의 발자국도...
“그건 아마 오소리일거예요 여긴 많거든...”
언제나 시기적절하게 툭하고 던져주는 중서아저씨의 말투가 새삼 재밌게 들려서 시작하는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아마 그때부터였다. 비행기 굉음소리...
착륙하기 위해 바로 머리위로 휜없이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초입길부터 하제방면 유도등이 있는 구역을 지날때까지 계속 되었다.
마치 산골촌놈이 하제쪽 풍경에 넋을 잃고 마치 생태답사길에 오른 듯 들뜨든 마음이었는데 그 작은 설레임마저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듯, 아니면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몸속 깊이 각인시키듯 비행기의 질주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아...!! 내가 서 있는 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장소가 던져주는 아찔한 어질감이란 마치 어떤 폭력적 판타지가 처리한 낯선 행성에서 서 있는 것 같달까?

그때마다 중서아저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의 마디마디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을 자연스레 유도하는 말들을 던져주곤 했다.
“갈대 어떻게 말리는 지 알아요...?”
“이 갈대를 베다가 삶아서 건조하면...”
사진 찍기 위해 일행과 살짝 벗어나 있던 나의 귀에 비행기 소음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중서아저씨의 목소리는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발 딛고 있어야 하는 어떤 삶들에 대한 깊은 힘을 느끼게 해주는 듯 해서 이상하리만치 관심이 되곤 하였다.

하제쪽 유도등 구역에 다달았을 때 중서아저씨는 우리가 계속 이쪽에서는 공사차량길만 따라 걷는 것 같으니 유도등 구역을 가로지르는 길을 찾아보는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기도 했고, 최근 3개월 동안 공사비 문제 때문인지 매립공사가 진척되지 않아서 사실상 공사차량들을 못 본 탓인지 우리가 걷는 길이 공사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서아저씨 의견대로 유도등 구역을

밑으로 관통하는 길을 찾아 보았으나 작은 갯골도 있고 갈대도 무성해서 길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길은 그냥 공삿길을 따라 유도등 구역을 빙돌아서 가는 걸로 정했다.

그렇게 유도등 구역을 지나는 순간에도 비행기들이 쉽없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한 가운데로 흰 왜가리가 날아 갔다. 왜가리만 보면 한없이 한가롭고 경이로운 풍경이었으나 그 사이사이 비행기의 굉음이 배경음처럼 깔리니까 더 괴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멀리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화산이 주는 무언가 신비롭고 영험한 기운을 사방으로 퍼트리는 전령사 같이 보이기도 하고 마치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새로운 현실을 마주할 거라는 걸 예고하듯, 왜가리는 우리곁에서 유유히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왜가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서둘러 일행은 화산초입으로 다가갔다. 그 초입에 당도하자마자 아까 그 왜가리인지 아니면 다른 왜가리인지 구분이 안 가게 똑 닮은 왜가리 한 마리가 길 중앙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다가가자 바로 화산 바위턱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렇게 앉아서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더니 갑자기 날아올라 우리 뒤쪽 그러니까 우리가 걸은 길에서 45도 방향인 미공군기지 안쪽에 포함된 화산의 언덕빼기쪽으로 날아 올라서 자연스레 우리 시선을 철조망이 쳐진 화산의 허리쯤으로 유도해 주었다. 마치 앞쪽의 아름다운 화산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뒤쪽의 아픈 화산도 기억하길 바라는 날개짓처럼 보였다. 그렇게 기지쪽 화산을 한바퀴 휘휘 날아돌더니 이내 새만금 쪽 신도로 공사 구간 쪽으로 높이 날아 올랐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레 기지쪽 화산과 새만금 쪽의 기괴한 조형물 사이로 침묵 속에 시선만 오고갔던 것 같다. 딱히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였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래서 더 슬픈 날개짓처럼 보였다. 그리고 기지쪽 화산이 가지고 있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풍경이 못내 그리워진달까?

그렇게 우리는 화산의 너른 품안으로 걸어들어갔다.

지난 봄 답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초여름 이번 난리법석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행한 화산에서의 캠핑을 참여했던 터라 화산은 익숙할 줄 알았다. 기괴할 정도로 낮선 화산의 바위들과 오랜 세월이 그대로 박혀있는 그 풍광을 그대로인 듯 싶었다. 다만 당시에는 풍광에 압도되었던 기억도 있지만 무언가 캠핑에 함께 했던 정겨운 사람들의 자취가 더 강렬해서인지 화산 자체에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정식 답사길에 만나게 된 화산, 어스름한 저녁이 풍광이 아니라 환한 대낮의 화산이 보여주는 그 장엄함에 조금 더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이제 막 본격적인 답사길을 시작할 때쯤 도착한 탓에 오랜 시간 머물 필요가 없었지만, 웬지 화산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을 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화산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인지 계속 발걸음을 멈추고 머물게 되는 시간이었다.

화산 곳곳에 새겨진 옛 경비초소 흔적들을 살펴 보았다. 선명하게 초소가 남아 있는 곳도 있고, 이미 짙은 수풀에 잠기어 어렵듯이 형태만 보이는 초소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초소와 초소 사이를 이어주는 시멘트에 박힌 유리 파편들이 지금도 서술 퍼렇게 그 날카로움을 뽐내며 지금 당장이라도 접근하는 모든 것들을 해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저번에도 그렇지만 이젠 '사실상 그 용도를 다한 이 시멘트와 유리파편을 좀 제거하면 어떨까? 언제까지 우리가 저지른 이런 엄청난 폭력의 흔적들을 이렇게 방치해야 하는 걸까?'하는 안타까움이 몰려왔다. 또, 화산을 조금 둘러가면 바로 보이는 미공군기지의 새로운 경계선과 새 초소들이 내뿜는 위협은 여전히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선명하게 화산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심지어 미공군기지 안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의 그 엄청난 굉음들이 어쩌면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기지의 어둡고 거대한 입이 어느새 화산을 넘어 바다쪽으로 확장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왔 다. 확장되는 전쟁에 대한 욕망이 기지를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공포감에 그 경계선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짓이 부질없어 보이도록 하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저 기지 안은 예전에 상제마을과 중제마을이었지 싶었지만 지금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일텐데, 이젠 하제마저 삼켜버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낮놓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어디까지 집어삼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잠시 이런 저런 상념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중서아저씨가 화산 정상 of 수풀에서 나왔다. 그러더니 도라지 한뿌리를 나에게 내미는 거다.

“영길샘, 이거 먹어봐요..도라지..”
“보통 도라지는 잎이 서로 마주보고 나오는데 이건 이상하게 각자 따로 나왔네..?”
“그래도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으니 영길샘이 먹어요..”하며 나에게 건네 주셨다. 뭔가 무심한 듯, 아무것도 아닌 듯 특특 내놓은 모양새가 재미있기도 하고, 뭔가 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제나 그렇듯 이런 일상적인 추임새에 마음에 금세 따듯해지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중서아저씨는 한결같이 사람을 일상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다. 예전 공룡이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싸움을 할 때 평화바람에서 뽕튀기 기계를 빌리러 군산에 왔을 때도 무심한 듯 편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던 모습, 아니 그 전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때 설해 소개로 잠시 이야기 나눌 때도 그랬던 것 같다. 뭐랄까? 굳이 특별한 무엇을 만들기 보다는 편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랄까? 처음 만났을때마저도 말이다.

생각해 보면 군산 평화바람 식구들은 언제나 그랬다. 앞서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랄까? 무언가 군산에 갈 때마다 각각 지형과 지물들에 자라온 것들과 얽혀 살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세계관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 그것을 위대하거나 자신의

창작물처럼 포장하고 의미부여 하는 것이 아닌 답사 내내 불어온 바람처럼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듯 툭툭 던질 수 있으면서도 묘하게 사람 마음을 그 땅에, 아주 작은 흔적에 머무도록 초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은 그래서 소중하고 영원토록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긴다. 중서아저씨가 화산 이야기를 하면서 봉화대가 있었다는 등, 화산 둘레의 갯벌에 게구멍을 보며 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혹은 도라지 마저도, 그 자체보다는 말하고 신경쓰고, 자연스레 함께하는 삶의 자세가 더 풍성한 감정들을 돌아주는 게 아닌가 싶었다.

답사를 시작하고 꽤 긴 시간을 화산에 머물며 휴식 겸 생각을 나눈 후 우리는 곧장 다음 답사코스를 향해 갔다. 화산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수라 갯벌이 드넓게 펼쳐지는 곳이지만 지금은 광활한 갈대밭이 조성된 곳이다. 공사차량길이 바다쪽으로 구부러지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기지경계쪽으로 길을 만들며 가야 했다. 봄답사 때만 해도 지금처럼 갯골에 물이 많지 않아 대충 기지쪽 방향으로 멀리서 보이는 버드나무 군락지쪽으로 나아가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갯골에 물이 너무 많고 갈대도 그때보다도 워낙 더 뻗뻗하게 자란 상황이라 난감해 했다. 우선 일행 중 장화를 신은 나와 재환이 갯골을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대략적인 길을 잡았다. 그 이후에는 중서아저씨가 낚으로 사람 두 명정도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갈대와 풀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낚질을 하며 건다보니 답사 시간이 점차 길어졌다. 다행히 기지쪽 철조망 그러니까 폭발물처리장 경계에 다다랐을 때에야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지경계를 따라 걷는 길이 나오기에 그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걸으면서 계속 길 표시를 하고 낚질을 해서 답사길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터여서, 짧지만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기지에서 보면 바다쪽으로 툭 튀어나오도록 조성된 폭발물 처리장은 둥글게 말려서 휘돌아가는

지형이어서 경계철책선을 따라 기지 쪽으로 붙어 걸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곳이 경고문구대로 위험한 폭발물처리장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넓은 풀밭과 푸르른 맑은 하늘이 어울리는 한적한 풍경이라니. 이곳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폭발물을 처리하는 곳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고즈넉하고 평온한 풍경이어서 어쩌면 더 인상이 깊었는지도 모르겠다.

폭발물 처리장을 벗어나자 일행들은 본격적으로 남수라갯벌의 드넓은 평야지대와 기지철조경계망 사이를 가로지르며 걸었다. 기지 쪽으로는 약간 높은 갈대언덕이 조성되어 있었고 바다쪽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갈대밭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중간쯤에, 그러니까 폭발물처리장을 벗어난지 얼마 안되어서 새로 흙을 부어서 만들기 시작한 둔덕이 있었다. 이제 막 조성되기 시작한 것인지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흙을 부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둔덕을 중심으로 남수라 방향 쪽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군산국제공항부지라고 했다. 그러니까 미공군기지에 붙어서 엄청나게 넓은 부지가 새로운 공항을 짓기 위해 구획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청주국제공항하고 매우 닮았다. 청주국제공항도 공군비행장과 잇닿아 있는데, 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즘보면 민간공항과 공군비행장이 구분이 되지 않게 혼용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공항 곳곳에 공군전투 헬기 등등이 머물기도 하고 유사시엔 공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평소에도 훈련을 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본격적으로 국제공항부지 쪽으로 걸었다. 그렇게 10여분 걷다보면 남수라쪽 갯벌 었던 곳에 존재하는 첫 번째 수문을 만나게 되었다. 기지쪽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인데, 마치 거대한 하수구 구멍처럼 갑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부터 바다쪽으로 작은 시내가 이루어진 곳이다. 수문에 의해 갯골이 형성된 곳에는 키보다 높은 갈대와 몇몇 갯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다. 멀리서 봐도 갈대가 사람키보다 크고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류가 자라는 군락지에는 어김없이

갯골이 존재했다. 남수라쪽으로 향하는 길에는 총 3개의 수문과 갯골이 자리한다고 했는데 처음 수문에 자리한 갯골이 물이 가장 많고 건너기 가장 어려웠다. 우리 일행은 이후에 이곳을 건널 사람을 위해 이런 저런 건널 방법을 찾아 보았는데, 결국엔 그냥 수문갑문을 밟고 넘어가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수문을 넘은 곳부터는 철조망으로 담장이 경계지어서 안쪽 활주로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가까이 미공군기지 활주로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곳이 일제식민지 시절 이후로 한번도 우리나라 땅이 되어본 적이 없는 곳이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무언가 기지 안과 밖의 풍경이 너무 선명하게 대비되었고, 기지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이나 경계 쪽으로 조깅 중인 미군이 인삿말을 건네며 달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생뚱맞았다. 아니 실제로 이 철조망 안쪽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구나 싶을 정도로 이 경계는 안과 밖을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고 있었다. 전쟁과 폭력은 너무나 오래도록 우리 곁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잡고 있는게 불편해야하고 공포스러워야 하는데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어쭙잖은 반성을 하게 만드는 풍경이었다. 그렇게 기지 안쪽을 구경하고 기지 바깥쪽에 동화되어 말없이 묵묵히 길을 내며 걸었다. 갈대밭 중간중간에 우리는 엄청난 수의 흰 조개들이 죽어있는 패총, 그러니까 조개 무덤언덕 같은 곳을 걷기도 했는데, 이게 곳곳에 보이는 소금길처럼 새만금 간척이라는 엄청난 재앙의 결과일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더 이채로운 풍경들이 안타까웠고, 곳곳에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해송군락지 만큼이나 마음에 깊이 남았다.

본격적으로 갈대밭을 걷기 시작한 후부터 일행들은 말이 없어졌는데, 그런 우리 마음을 놀래키듯 잠시 넋을 놓기만 하면 평들이 후다닥 날아올랐다. 분명 다른 놀일텐데도 마치 우리를 따라오며 일행놀리기에 재미불인 장난꾸러기처럼, 그게 아니면 너무 걷는 것에만 신경쓰는 우리들이 못마땅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놓은 인간들을

저주하고 싶었던 건지 거의 남수라갯벌 끝에 다다를 때까지 쉽없이 후다닥 거렸다. 그렇게 남수라쪽 갯벌쪽으로 답사를 진행한 시간이 이번 답사에서 가장 긴 구간이었지만 어쩌면 일행들이 가장 말을 아끼게 된 구간이기도 했다. 수문을 두 개 더 만나서 수문과 갯골을 넘기도 하고, 중간에 기지철조망 밑에서 휴식과 싸온 점심을 먹는 와중에서 별다른 말없이 그저 눈앞에 펼쳐진 풍광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너무나 울창하게 자란 갈대가 걷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밀림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우거진 다양한 풀들이 이젠 이곳이 갯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려주는 그 슬픈 진실 앞에 침묵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그와 대조적으로 너무나 광활한 활주로의 굉음에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사실상 답사의 마지막까지 기지 철조망에 바짝 붙어 걸어야 하는 구간, 그렇게 걷다보면 새만금매립지의 북쪽 시작지점을 목도해야 한다는 진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녘 들판에 펼쳐진 황금물결까지. 이제 저만치 남수라가 보인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거대한 개발광풍의 폐해가 고착화되지 않고 그나마 조금의 회복이라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기지만 둘러보았는데도 나는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있는 전쟁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전쟁이 성큼성큼 다가올 것 같은데도 우리는 전쟁반대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게 아닐까...?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괴의 톱니바퀴와 자본에 의한 거대한 파괴현장이 이렇게나 절묘하게 어울리며 서로 경쟁하는 곳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오직 군산시민들에게만 군산에서 생명평화의 목소리를 내고, 작은 생명을 어떻게라도 지키려는 활동가 몇몇분들에게만 내맡긴 채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꾸 다짐하는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겨우 한발 내딛은 나의 답사 길이 누군가가 이어받아 지치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생명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길 빌어 본다. 오이가 말한대로 100번만 걸으면 평화시대가 올거라는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걷고 생각하고 몸으로 느끼고 나니 진짜로 100번만 걸을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전쟁없는 세상이, 새만금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아니 100번을 걸으면서 우리가 무언가 꿈꾸고 실행하며 믿음을 좀 더 현실화해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다짐 또한 해 본다.

이번에 답사에 참가하면서 깨달은 것은 “걷는 순례길이 이 기지의 확장을 막고..평화의 길을 조금이라도 앞당기자...!”라는 어느 책에서 읽은 문구가 너무나 선명하게 머릿속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답사 내내 이런 저런 길안내와 기지와 새만금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 중서아저씨에 대해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기지 전체 한 바퀴를 완주해야 하겠다는 욕심을 갖기 보다 매년 조금이라도 답사 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봐야 겠다. 그게 활동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군산 바닷길 답사를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운 길이라 느껴며 함께 하는 이들 또한 매년 새로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해졌다. 그래서 답사 후 이대로 혼자만의 감흥으로 간직하지 않고 글로나마 정리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매번 달라지고 매번 새로워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좀 정리하고 기억해 놓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내가 받은 이 감흥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상투적인 노랫말로만 기억하고 있을 그런 익숙한 문장이 가지는 힘을 몸으로 각인할 수 있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다.

함께 하자... 우리 이 길을...!!



군산공원에서
(마을 주민 최경순 고종섭 님 제공)



하제마을 바닷가 어업하는 여인들
(마을 주민 최경순 고종섭 님 제공)



문산에서 부는
풍화바람